

FeminiSm IS For Everybody

2008 연세대학교 제10회 여성제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16일 화 영 화 "우리들은 정의파다" 상영 + 관객과의 대화
오후 4시 30분 백암관 강당

17일 수 개막식 "여성주의자, 여행을 떠나다"
오후 12시 30분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강 연 "웃음 든 여성, 목소리를 내다."
오후 7시, 논지당 /
김영옥 (문화평론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18일 목 영 화 "쇼킹 패밀리" 상영 + 관객과의 대화
오후 6시 30분, 백암관 강당

19일 금 폐막식 "활활 타올라라, 성폭력의 기억"
오후 4시 30분,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워크숍 "스윙, 스윙, 뜨거운 파티♡"
오후 6시 30분, 학생회관 3층 푸른샘 /
간사: 모모와 송이송 (여성주의 출판디자이너 / 스윙세션즈의 첫 번째 연인)

17~19일 전 시 "Feminism Is For Every 영화"
오전 10시~오후 6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천막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전화 02)2123-3645 메일 action-fem@yonsei.ac.kr 홈페이지 http://www.yonsei.ac.kr/~ysystem

FeminiSm IS For Everybody

2008 연세대학교 제10회 여성제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주관 연세대학교 제10회 여성제 <Feminism Is For Everybody: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기획단
주최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CONTENTS

02 Feminism Is For Everybody

04 제10회 여성제 Feminism is for Everybody: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나의 생존은 고래심줄

시선으로부터 살아남기

09 내 몸무게는 00kg

성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11 달빛 아래 빙글빙글

13 나의 공포, 나의 공간 ... 자취방

14 <액션이 필요해! ①> 지방달산생의 조언이 필요한 이철의 기억

16 <액션이 필요해! ②> 어찌저찌 애를 써도 파이트백을 못 하고 살지만
하고 싶어 죽겠는 여학생 J의 이야기

18 <액션이 필요해! ③> 스트리트 파이터 송이송의 우당탕탕 편지

남성으로 살아남기

20 '소문자 남성 모임' 날개짓 시작!!

나의 연대는 오색줄

24 [날려라 빗자루!]와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이 함께 나눈
중년여성, 여성노동자로서의 삶 이야기

29 엄마, 안녕?

33 엄마와 나

35 1학기 때 보셨나요? 알록달록했던 "엄마곰 엄마곰 아기곰" 플럼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내가 잡아야 할 정신줄

정신줄 꼭 붙들고 본 학교

38 학내 화장실 깨달리기

40 호모포비아 학내에서 정신줄 붙들고 살아가기

43 "여휴파티"를 소개합니다.

정신줄 꼭 붙들고 본 사회

44 나쁘게 진화하는 미스코리아

46 광장에 울려 퍼지는 그녀들의 목소리

50 엄마가 되려면, 꼭 결혼해야 하나요?

52 김현미 선생님과 인터뷰: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56 기획단 후기

말하자, 너의 경험을 굵이 굵이 풀어내어,
나의 경험에 둘둘 말아서
또 다른 것에 마주칠 때까지
다른 목소리들이 더 이상 짓눌리지 않도록
하나 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아도 억압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음을

그냥 그런것, 원래 그런것, 당연한 것들은
사뿐히 즈려밟고

폭로해버리자. 다 뒤집어 버리자.
원래 내 모습 딱원 없었다고
내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하고 우렁차다고

관계안에서 흐드러지는 여성주의가
그들의 폭력들을 씹어먹는다.

모든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고,
일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횡단하고 소통하는 나는,

나는 행복한 페미니스트 이다.

by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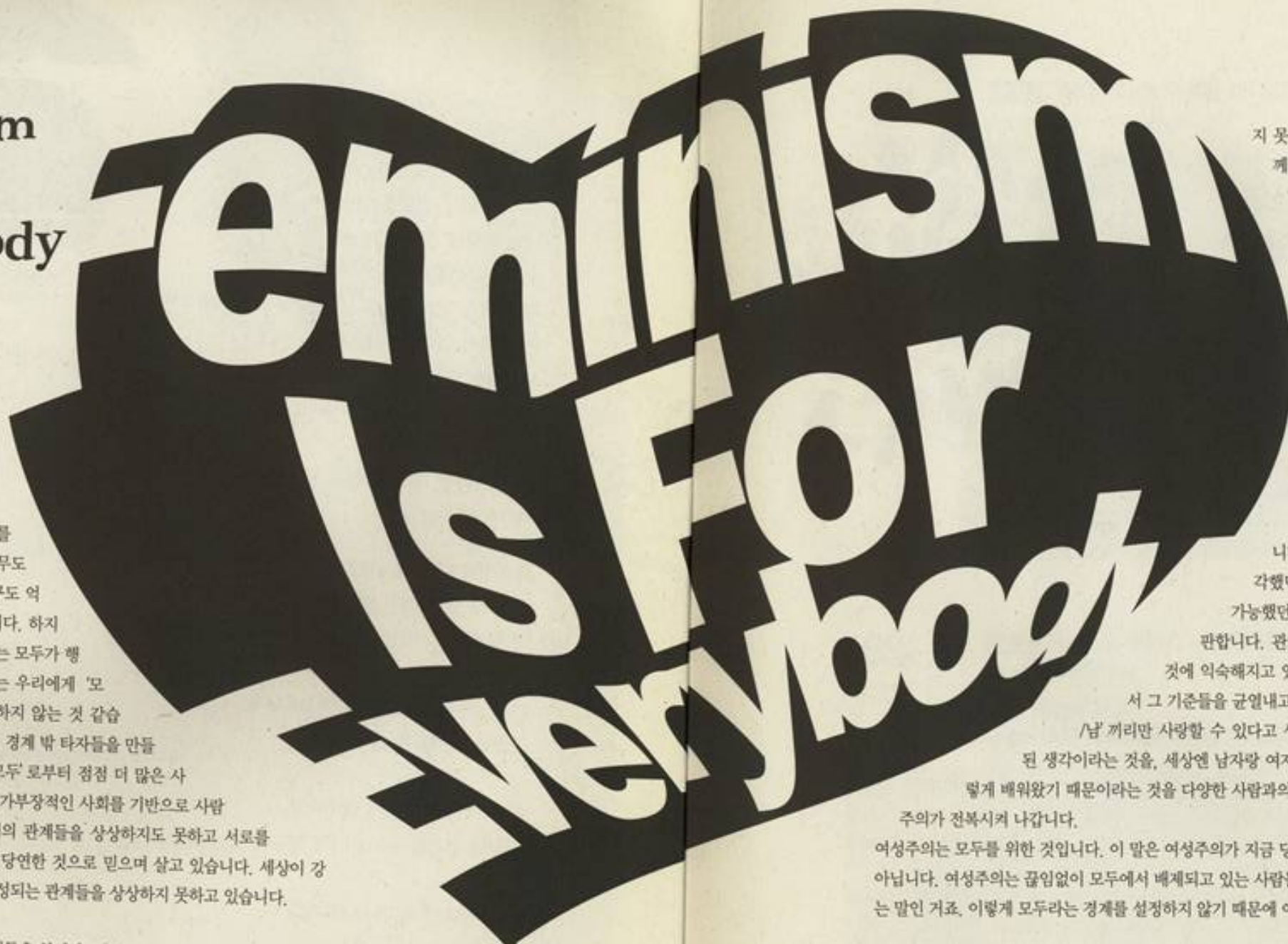
FeminiSm IS For Everybody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억압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우리에게 '모두'를 상상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 밖 타자들을 만들어내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모두'로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각본 이외의 관계들을 상상하지 못하고 서로를 상처 주는 폭력적인 관계 맺기를 당연한 것으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본질에 갇혀, 소용으로 구성되는 관계들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는 누군가와 함께 살 고민들을 합니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이 사회에서는 분리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마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예쁜 보도블럭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는 이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때문에 지나갈 수 없어 난감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겐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 친구 있어요? 라는 말이 정체성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합니다. 공사장의 위험표시판을 보면서 저것을 볼 수 없는 누군가는 위험을 알아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남녀로만 구분되어 있는 공공화장실에 가



www.room2room.biz



지 못해 밖에서는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고기가 안 들어간 메뉴는 존재하지도 않는 식당 메뉴판을 보며 친구랑 밥 먹으러 들어온 어떤 사람은 물만 마셔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고민들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조건들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 가지 기준으로 구분 짓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성주의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이야기 합니다. 매일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로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이 맞닿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소통합니다. 엄마와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을 뒤집어 내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학생에 대한 폭력적인 방식의 관계 맺기를 비판합니다. 관계들을 평균적인 기준들에 맞추어 서열화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여성주의로 관계 맺어 나가면 서 그 기준들을 균열내고, 서열화된 관계들을 뒤엎는 거죠. '두 명의 여/남' 끼리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성애중심주의에 기인한 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세상은 남자랑 여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람과의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관계 맺기를 통해 여성주의가 전복시켜 나갑니다.

여성주의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성주의가 지금 당장 모두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정 짓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주의는 끊임없이 모두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관계들을 드러내고 고민한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모두라는 경계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주의는 모두를 위할 수 있는 겁니다.

가부장제 사회의 공고한 억압을 폭로하고 그 틈들에서 시작되는 여성제가 시작됩니다. 다이어트의 잔혹함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겨드랑이털에 대한 억압, 알다리에 대한 비아냥들도, 두둑한 뱃살로 꽃하는 징그러운 시선들을 얻어버리는 거죠. '가족'이라는 가부장제의 기획에 억눌려 한 번도 울리지 못했던 엄마들의 외침도, 매일매일 이중노동에 시달렸던 여성노동자들의 분노도 부풀어 오를 겁니다. 온갖 그녀들의 짓눌렸던 몸짓들도 쏟아져 나올 테죠. 횡단과 소통과 일상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경계에서 숨쉬고, 일상으로 다가서는 여성주의가 이야기합니다. Feminism is for everybody, 행복한 여성주의를. ●

by 행복한 여성주의자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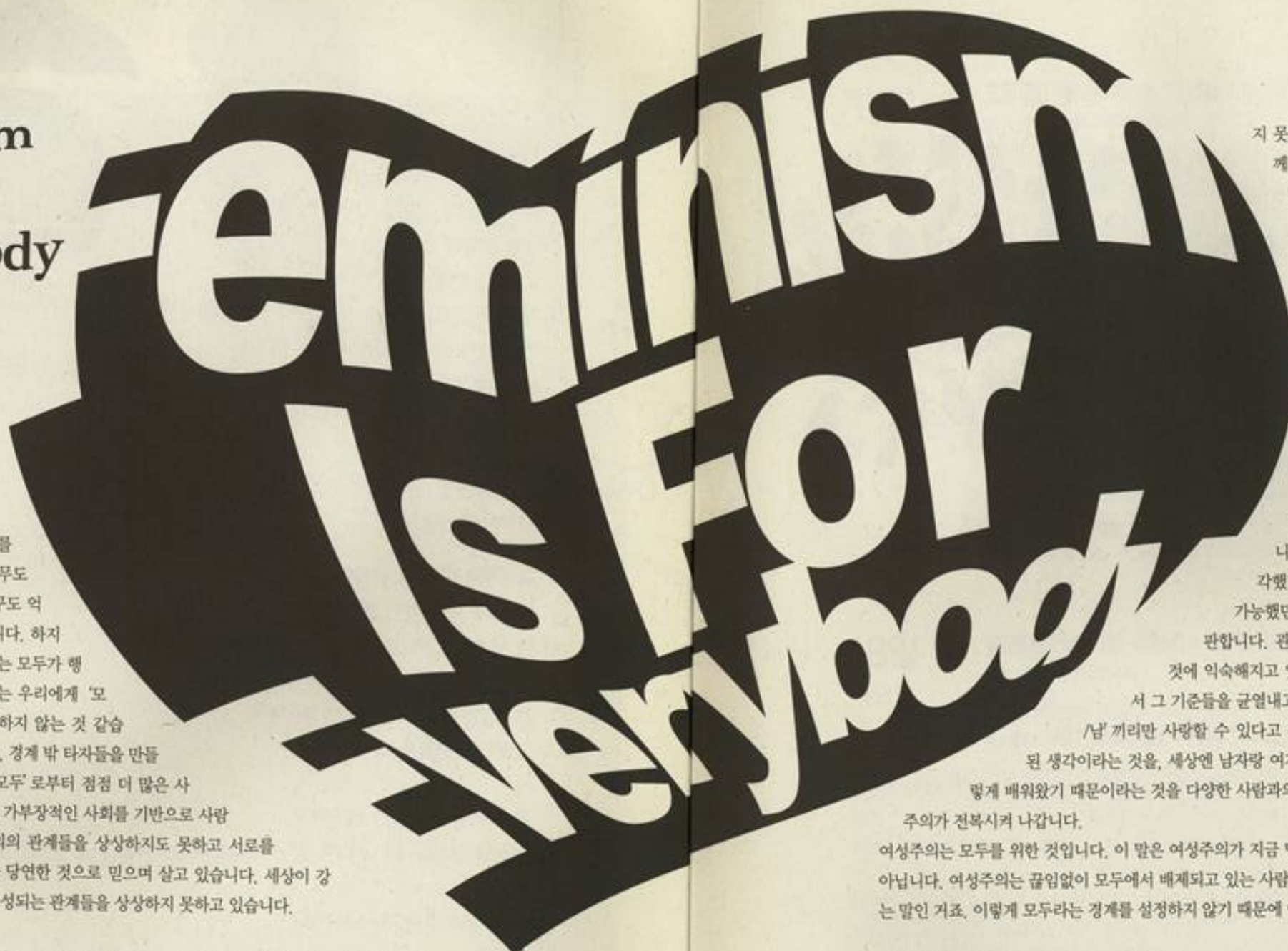
FeminiSm IS For Everybody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억압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우리에게 '모두'를 상상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 밖 타자들을 만들어내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모두'로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각본 이외의 관계들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서로를 상처 주는 폭력적인 관계 맺기를 당연한 것으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본질에 간혀, 소통으로 구성되는 관계들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는 누군가와 함께 살 고민들을 합니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이 사회에서는 분리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마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예쁜 보도블럭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는 이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때문에 지나갈 수 없어 난감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 친구 있어요? 라는 말이 정체성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합니다. 공사장의 위험표시판을 보면서 저것을 볼 수 없는 누군가는 위험을 알아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남녀로만 구분되어 있는 공공화장실에 가



www.room9design.biz



지 못해 밖에서는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고기가 안 들어간 메뉴는 존재하지도 않는 식당 메뉴판을 보며 친구랑 밥 먹으러 들어온 어떤 사람은 물만 마셔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고민들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조건들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 가지 기준으로 구분 짓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성주의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이야기 합니다. 매일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로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이 맞닿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소통합니다. 엄마와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을 뒤집어 내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학생에 대한 폭력적인 방식의 관계 맺기를 비판합니다. 관계들을 평균적인 기준들에 맞추어 서열화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여성주의로 관계 맺어 나가면 서 그 기준들을 균열내고, 서열화된 관계들을 뒤집는 거죠. '두 명의 여/남' 끼리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성애중심주의에 기인한 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세상은 남자랑 여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람과의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관계 맺기를 통해 여성주의가 전복시켜 나갑니다.

여성주의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성주의가 지금 당장 모두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정 짓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주의는 끊임없이 모두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관계들을 드러내고 고민한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모두라는 경계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주의는 모두를 위할 수 있는 겁니다.

가부장제 사회의 공고한 억압을 폭로하고 그 틈들에서 시작되는 여성제가 시작됩니다. 다이어트의 잔혹함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저드랑이탈에 대한 억압, 알다리에 대한 비아냥들도, 두드러진 뱃살로 꽃하는 징그러운 시선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가족'이라는 가부장제의 기뢰에 억눌려 한 번도 울리지 못했던 엄마들의 외침도, 매일매일 이중노동에 시달렸던 여성노동자들의 분노도 부풀어 오를 겁니다. 온갖 그녀들의 짓눌렸던 몸짓들도 쏟아져 나올 테죠. 횡단과 소통과 일상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경계에서 숨쉬고, 일상으로 다가서는 여성주의가 이야기합니다. Feminism is for everybody, 행복한 여성주의를. ●

by 행복한 여성주의자 나누기



19일
금요일

페막식 "활활 타올라라, 성폭력의 기억"

오후 4시 30분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나를 불안하게 하는 공포, 그날 그곳에서 생겨난 트라우마, 상처로 남은 기억들.
모두 태워버린다. 억눌리고 말하지 못했던 아로새긴 기억들을 불 속에 집어 넣고 태워버린다.
내 감정들을 오롯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이 사회의 차별과 억압을 내던진다.
내안의 여성주의가 이제 막 꿈틀거리며 생동한다.

워크숍 "스윙, 스윙, 뜨거운 파티♡"

오후 6시 30분 학생회관3층 푸른샘 / 간사: 모모와 송아송 (여성주의 춤 테라피스트/ 스윙시스터즈의 멋진 언니)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당신을 위한 스윙파티!

스윙댄스, 처음 들어보셨어요? 취 본 적이 없나요? 저도 그래요. 훗-고-

우리 한 번 춤에 대한 두려움이나 남들 시선 걱정 없이, 우리 마음대로 몸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춤판을 벌여보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춤을 못 춰요"

내 안에서 누가 뛰어나올지 꼭꼭 눌러보며 꼬집어내는 몸풀기 시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노골노골하게 열고, 스윙댄스의 기본 동작부터 친절하게 가르쳐주실 간사님도 함께 하시
니 주저하지 말아요.

"커플댄스는 이성과 춤을 추는 것이 불편해요." "여자라고, 남자라고, 춤 동작이 정해져서 싫
어요."

우리 파티에는 그런거 없다구요! 우리는 성별 역할을 고스란히 수행하도록 하는 이성애중심
주의에 반대하고, 남성성이나 여성성같은건 마음대로 이리저리 비틀어보고 꼬아보는 게 10
회 여성제 기획단이니깐!~*~* 언니들도 리더하고, 오빠들도 팔로워하는 알뜰다운 공간! 내
마음대로, 내 로망대로! 움직이는 신나는 파티!

푸릇한 몸과 마음에서 춤이 절로절로 나오고, 우리들끼리 호드작호드작한 이야기가 때때로
쏟아나갈, 여성주의 스윙파티에 함께해요★

준비물 : 스윙파티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부터 들쭉이고 있는 당신 마음속의 댄서♥

*워크숍은 간사님과 기획단들이 참가 인원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 메일을 받아요.
action-fem@yonsei.ac.kr로 이름(혹은 별명)과 연락처를 적어 살짝 보내주세요!_o

FeminiSm IS For Everybody

17~19일
삼일내내

전시 "Feminism Is For Every 영화"

오전10시~오후6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천막

싸우는 영화 : 얹어치고 메치고 후려치는 영화

영화의 밤길, 자취방. 언제나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성폭력의 공포, 숨겨지기만을 권장 받는 이야
기들. 쏟아내자! 태워버리자. we don't need another hero. 영화는 나를 지키는 포즈를 취해본
다. 이리 저리 몸을 움직인다. 가격한다. 타악 타악! 기념사진 찰라!

춤추는 영화 : 거드랑이에 날개 달았다!

"다이어트 해 보셨어요?" 영화의 몸을 강타하는 시선들. 강요된 제모, 다이어트, 옷차림, 행동거
지. 몸은 어느새 전쟁터가 되어 있다. 획일적인 몸을 강요하는 이 사회는 미의 기준을 패션산업이
라는 도구로 교묘히 통제한다. 소리쳐라. "이 살인마들!"

미회를 사랑한 영화 : 이성애 중심주의에 하이킥을 날린다

영화는 미회가 좋다. 미회도 영화가 좋다. 영화는 미회랑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죽, 그렇지만 이
성애 중심주의는 교실에서 거리에서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영화와 미회를 괴롭힌다. 어설픈 기
준들로 강고하게 싸여있는 이성애 중심주의의 성. 영화와 미회, 멋지게 하이킥을 날린다.

엄마와 영화 : 찬장에 숨겨 둔 맛난 술, 엄마랑 영화랑 훌쩍 훌쩍

담배, 성경책, 목걸이... 영화는 엄마의 상징물을 전시한다.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들이 펼쳐 놓는
다. 집에 가서 엄마랑 훌쩍훌쩍하며 맛난 술을 마신다. 둘의 목소리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모두
의 귓가에 머무른다.

영화가 사는 동산

여성주의 동산에 당신을 꽃아놓으세요. 영화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 동산을 가득 채워요.

우유도 와인잔에 마시는 영화

영화가 보던, 여성주의 책을 쓴 가격에 사가세요. 기획단들이 만든 이론 책갈피도 함께 드립니다.

춤추듯 땀 굽는 영화

장애여성(공간)의 '춤추는 베이커리'에서 직접 만든 맛나디 맛나디 쿠키와 머핀을 판매합니다.

전시 [날려라, 빗자루]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와슬관 비보계단과 대강당 가는 길

가끔 건물 안을 지나가다 보면 작은 문이 있습니다. 사실, 찾기 쉽지 않아요. 가장 어두운 곳, 후
미진 곳에 있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 있으니까요. 창고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지 않게 만든 그 문처럼 학내 미화 청소 노동자 분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
다. 그녀들의 휴게공간은 학내에서 그녀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
습니다. 여성 노동자 분들의 모습들이 이 공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도 단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보지 못했던 학생과 노동자. 부족하게나마 이 곳, 이 시간에서 서
로를 드러내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학하던 때,
저 우울하고 검붉은 낮빛에 건물 뒤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소심해보이는 여학생에게서,
지금의 페미니스트인 내가 나올 것이라는 상상력은
아마 그들 누군가의 딱딱한 뇌에도 없었을 것이다.

여성성의 틀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가부장에게 물려받은 권위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고,
'여자니까' 라는 당위로 활동을 축소하던
공동체는, 교수는, 학교는, 사회는, 나를 말 그대로 쫓쫓 키웠다.

지금 나는
여성의 털을 못 견디는 사회를 해집어놓는 날개달린 분란의 씨앗,
나는 밤길의 개저씨들을 퇴치하는 자기방어훈련의 달인,
나는 모든 사이즈의 여성을 사랑하는 반차별주의자,
나는 교수의 성폭력적인 농담을 조용히 받아 적었다가
맹비난하는 메일을 보내는 여성주의 키보드 워리어.

나는 고래심줄같은 생존력을 지닌, 찬란한 여학생이다.

나의 생존은 고래심줄

내 몸무게는 ○○kg



"두통, 변비, 동맥. 청소년 좀 살려주세요!"

2008년 5월, 촛불소녀들도 외쳤다. 그들의 상흔한 학교생활을 위해.

나도 내 살이 본격적으로 찌게 된 원인 중 하나를 '고등학교 시절에 받은 임시 스트레스' 라고 진단하고 싶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시작된 보충수업과 야간타올습 등으로 인해 새벽별을 보며 학교에 가고 까만 밤하늘을 보며 집에 갔고 나의 소중한 집은 여관 역할을 할 뿐이었다. 이렇듯 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해결하던 나에게 건강을 위한 음식을 먹기란 쉽지 않았고 떡볶이, 김밥, 컵라면, 매점 빵 등은 맛이 없어도 먹어야 했고, 내가 그것들을 즐겨 찾기도 했다. 교실에서 벗어나 쉬는 시간마다 가는 교내 매점은 우리들의 해방구 또는 도피처였기 때문이다. 왕복 14층을 오르내려야 하는 그 멀던 매점을 하루에 8번까지도 왔다 갔다 했던 고등학교 입학 후 3개월, 그 때부터다. 내가 '급' 살이 찼던 것은, 그 3개월의 시간동안 나는 키는 되려 줄고, 10kg이 찼다.

그렇게 갑자기 살이 찌고 나니 현저하게 배가 나왔다는 것에, 배가 부른 느낌에 짜증이 나서 도저히 책상 앞에 앉아있기가 싫었다. 수업시간이나 야자시간에 교복 블라우스와 조끼 단추는 당연히 풀려 헤치고 있었고 치마 지퍼까지도 내리고 있었다. 살이 찼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성적이 안 오를 때마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먹을 때만큼은 행복했고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겐 '밥시간'과 '매점 가는 시간'이 구세주였다. 그러니 살이 빠질 리가 없었고 나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 10kg을 달고 살았다. 살을 빼 보겠다고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줄넘기, 농구, 축구, 저녁 굶기 등 별 짓을 다 해보았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보지 못 하였다.

대학 가면 빠진다는 살은 누구의 살입니까. 왜 내 살은 대학을 가고, 왕복 4시간의 거리를 통학을 하고, 이 동아리, 저 동아리를 가서 활동을 해도 안 빠지는 건가요.

대학 입학 후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나의 불룩한 배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나는 사고를 쳤다.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식욕 억제제를 드셨던 것이다. 물론 지방 흡입에서부터 별의 별 다이어트가 다 행해지고 있는 때에 사고랄 것도 없지. 어쨌든 나는 내 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화학약품이 들쭉 담긴 주사 바늘과 캡슐을 주기적으로 집어넣고 있었다. 그렇게 '지방분해 주사+식욕 억제제+굶기+운동' 두 달 패키지는 놀랍게도 7kg 감량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내 몸 안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몇 년 만에 가벼워진 몸무게 덕분에 나는 날아갈 것만 같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그러다 나는 여성주의를 만나게 되었다.



당신이 살지 않은 삶

결혼을 하지 말거나
아이를 덜 낳을 것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광적으로 열중하고
다른 일에는 덜 신경 쓸 것을.

고기를 덜 먹고
산책을 많이 할 것을.

떠드는 시간을 줄이고
화장품에 덜 투자하고
그 대신 자선냄비에 더 많이 넣을 것을.

다리와 거드방이 발을 면도하는 데 시간을 덜 쏟고
천문대를 더 자주 찾아가 밤하늘을 구경할 것을.
그리고 동네 건달들이 더 자주 전화하게 할 것을.

- 조안 섀퍼

일단 나는 사과부터 했다. 내 몸을 괴롭히고 학대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했다. 아니 분노부터 했던 것 같다. 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굶어가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가. 모든 여자들에게 남편하고 아름다울 것을 강요하는 매체들과 사회 인식에 분노하였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내 배님, 내 다리님, 내 가슴님. 감사합니다. 있어주셔서, 그냥 존재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내 몸무게는 다시 고등학교 시절의 그 몸무게로 돌아갔다. 열정적으로 일과 사랑을 했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거기서 또 다시 에너지를 얻었다. 여성주의자로서, 여성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행복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 장애물을 넘지 못했는지 머리로는 '나를 긍정하고 내 몸을 사랑해야지' 라면서도 다시 살을 빼고 싶은 욕구는 커져만 갔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여성주의자의 외모에 대한 편견과 달리,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7kg을 감량했던 놀라운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았다.

지금은 내 몸에게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을 습관화하려 노력 중이다. 또 다시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살을 빼고,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인 여성상'의 범주에 들러 체중계의 숫자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바보 같은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앞으로 무조건 굶거나 칼로리를 일일이 따져가며 먹는 것보다는 내 위가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도록 영양가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고 실천할 것이다. ●

"우머니스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사랑한다." (A Womanist loves herself regardless.)

- 흑인여성 작가, 엘리스 워커

by 낚타의 등짐을 다 벗어버리고 사막으로 자유를 찾아 도망가 포효하는, 사자



"아한 옷이 무슨 상관 성폭력은 가해자 탓"

지나가던 언니들과 아저씨들과 강아지가 쳐다봤다. 목소리가 너무 컸나? 집회에서 구호외치면 뭐 그런 거 아닌가.

'우지곤' 송판이 부서졌다.

"아무데서나 오줌 누지 마세요" 라고 썼던 송판 부서지는 소리가 화장실 변기 물내려가는 소리보다 더 시원했다.

7월 4일 친구들과 달빛시위에 다녀왔다. 인사동 무대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오더니 바둑이로 변신해버린 친구가 너무 귀여웠다.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만)이 모인

것을 본 적이 있나 싶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느니 어쩌니 하는 말이 생각났다. 오늘은 뭐가 깨지려나? 웃음이 나왔다.

제5회 밤길 되찾기 시위 : 달빛 타고 노는 령희

밤길에 노랑게 빛나는 초승달을 타고 노는 불량소녀 영희와 영희똥지 않은 까칠한 표정으로 팔근육을 자랑하는 바둑이가 함께하는 달빛시위가 열렸다. 짧은 머리에 교복을 입고 철수의 '안녕?'이라는 인사에 '글쎄~'라고 대답하는 영희는, 성차별적 문화와 '여성다움'의 틀과 싸우는 그 시기의 우리를 나타낸다. 지금의 영희도 밤길에 '안녕?'이라고 물었을 때 '안녕!'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글쎄...'이다. 영희와 함께노는 불끈 팔뚝 바둑이는 영희와 함께 놀지만 서로의 안전을 양도하지도 침해하지도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향긋한 냄새 풍기며 단정한 머리와 조신한 복장을 하고 '안녕~'이라고 인사하도록 교육받지만 우리의 현실은 '글쎄~'라고 까칠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불량소녀 영희다.

영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길을 걸어가는 파트너 바둑이지 '내가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는 철수가 아니다. 여성에게 보호자는 필요없다. 아한 옷도 짙은 화장도 밤길 나들이도 성폭력의 원인이 아니다. 성폭력은 가해자 탓이라고 분노를 안고 당당하게 재기발랄하게 말하기부터 시작하기. 그렇게 제5회 달빛시위가 열렸다.

자기방어훈련시간에는 소리 지르기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다. 목소리 크고 시끄럽기 그지없는 내가 막상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자니 생각만큼 안 되었다. 가르쳐주는 동작을 따라하는 것도 너무 어색했다. 머리 꼬명이를 잡혔을 때 손목을 꺾어버리는 방법도 배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급소가 어딘지도 배웠다. 브라보! 그래도 친구랑 서로 직접 해보라니... 그건 좀 못하겠더라. 밤길이 되면 고삐 풀린 짐승마냥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들이랑 마주했는데 소리도 못 지르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붙들리면 어떡하지... 무서웠다. 열심히 외우려 하고 따라하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액션은 힘들것 같다. 밤길에 술 먹고 풀린 게 네타이인지 정신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흠칫 놀라기만 할 뿐, 이게 주차장인지 지네 집 화장실인지 구분도 못하고 노상 방노하는 경범죄 현행범을 봐도 뭐랄 한마디 욕과 한 모금 침을 선사하고 싶지만 눈이라도 마주칠까 피해가는 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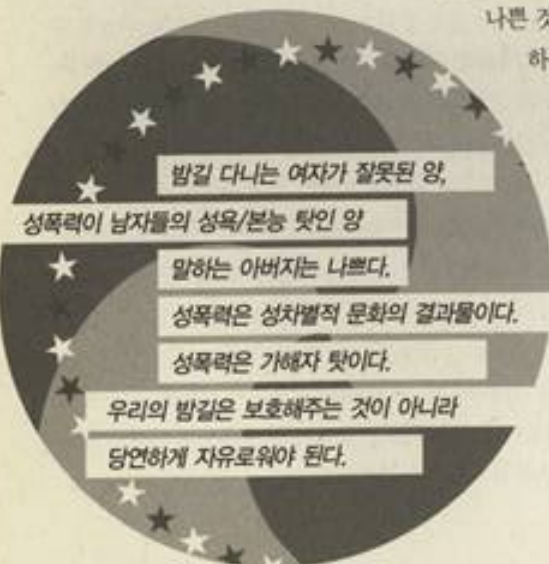


아씨, 내가 왜 풀어야 돼? 난 아무 짓도 안했는데, 가사를 바꿔놓은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며 열심히 걸었다. "밤길이 위험하면 니들이 들어가라."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명언이다.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노래방/PC방/만화방 등등 놀이문화의 '방'들에 자주 출몰하는 나다. 얼큰히 마시고 들어가다 보면 혀를 끌끌 차는 아저씨들의 눈과 딱 마주칠 때도 있다. 아니 왜? 나는 놀지도 못합니까?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꼭 이 한 마디 인사는 한다. "고마워, 잘가" 아니 대체 나는 뭐가 고마운 건데?

나를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의 통금시간을 정해놓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문자하고 전화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밤길에 물루랄라 걸어가는 나를 보고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도, 내 친구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게 하는 사람들도 내 밤길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것은 똑같다. 데려다 주는 친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사건의 예방이 다른 남자의 보호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쁘다.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디 여자가 밤늦게 싸돌아 다니냐' '원래 남자들은 다 짐승이다' 라고 밤길 다니는 여자가 잘못된 양, 성폭력이 남자들의 성욕/본능 탓인 양 말하는 아버지는 나쁘다. 성폭력은 성차별적 문화의 결과물이다. 성폭력은 가해자 탓이다. 우리의 밤길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유로워야 된다. 아아, 백양로에서도 큰 소리로 말하고 싶다. ●

by 아이텐션 전투, 뽕



나의 공포, 나의 공간... 자취방

그리 멀다고도 하기 힘들지만 통학하기도 쉽지 않은 집에서 나와, 혼자 자취를 시작한지 만 2년이 다 되어간다. 작지만 깨끗하게 부엌과 화장실과 책장, 침대가 있는 곳에서 즉 살고 있다. 혼자 산다고 하면 흔하들 제대로 밥은 해먹고 다니냐고 물어본다. 가끔씩 요리에 투지와 노력을 불태우는 취미와는 별개로, 애초에 나에게선 선택권이 없다. 라면을 끓이는 요리가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일단 해먹거나 드물게는 포장해서 집에 들고 간다. '딩동' 벨소리가 울리기는커녕 초인종

자체가 없고 문을 활짝 열면 온 방이 들여다보이는 곳에 살고 있는 나에게, 배달음식은 자취방에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한 번은 너무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마침 학교 근처에 있던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음식을 같이 시켜먹었다. 누군가와 같이 있음이 '딩동' 벨소리나 안전키처럼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었다. 뉴스에서 아주 가끔씩 나오는 '혼자 사는 여자(대학생)'과 관련된 사건들이, 나의 일상 속에서는 항상 그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 불편하고 짜증났다.

잠이 들면 누가 엿어 가도 모를 정도로 퍼질러 자면 내가 문자 소리, 전화 벨소리에 깨게 된 것도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면 세상모르고 물을 잔다. 이따금씩 복도에서 울리는 발소리에 귀가 푹뚫 새워져서 몇 시간씩 잠을 설치거나, 이것저것 하면서 뒤척이다 해 뜨는 것을 보고서야 잠이 드는 날도 생겼다. 캄캄한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문이 잠겼나 확인하고, 노트북을 두드리다가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안도감과 괜한 답답함을 느끼는 일들은,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 내 방은 온전한 나만의 공간인 것 같았는데, 이것저것 신경 쓸 것 없이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방에서 담배를 피면서도, 텅글텅글 거리면서도 내 방에 있는 나는 마음 밑바닥에는 두려움을 깔고 그 위에서 물루랄라 좋아하고 있었다.

너무도 사랑스럽던 내 방의 전설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은 더 커지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것저것들에 대해 짜증과 분노가 솟구쳤다. 내 자취방의 전설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이어져서 어느 곳에도 내가 옮겼을 자유로운 수 있는 곳은 없는 걸까 침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불편함과 두려움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내 삶의 억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생각을 거듭할수록 거꾸로 힘이 되었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지만, 공포의 이유와 대상을 안다는 것은 조금씩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그것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한다. 말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상에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경계할 수 있게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공포에 대해서 말하기는 이따금씩 오히려 공포를 키워주기도 한다. 내 것으로 인지한 것 각심을 일깨우지만 버거운 정도로 상상에 현실감을 부여해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지도 않다는 것은 무기력함을 더하며 잠 못 드는 밤을 늘려만 갈 뿐이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 말하고 또 말하는 것으로는 눈앞의 공포는 사그라지지 않는 것만 같다. 하지만 말한다는 것은 나를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존재에서 인식하고 경계하는 존재로 만들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말하기가 만들어 낸 것은 나의 공간과 시간을 방해하고 침탈하는 공포에 대해서 대항하는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나 자신이다. 변화의 결과물은 작을 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공포랑 투닥투닥 싸워나가지 않을까. ●

by 아직도 두박두박 발소리에 흠칫 놀라고 마는, 뽕



그 전 아마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거다.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엄마의 미용실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높다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다. 지금은 그 언덕을 지날 때 숨을 헉헉거리면서 왜 이따위 지형으로 길을 만들어놨는지 푸념을 늘어놓지만, 그때의 나는 그 언덕이 마치 100미터 레이스의 트랙인 양 심장이 터질 것처럼 달려서 넘어가곤 했다. 나는 빌리엘리어트가 된 것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느끼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검은 색의 빛바랜 옷을 입은 부랑자아저씨가 느릿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 넓은 길에서 나와 그 아저씨는 아주 가깝게 스쳐서 지나갔는데 그 때 아저씨는 나의 허반신 부분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왔었다. 그 때의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훌쩍 아저씨의 손을 뛰어넘어서 장애물경주를 한 것처럼 신나게 뛰어갔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다시 한번 그 언덕 위에서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전력 질주를 하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저씨가 양 손에 들었던 물건을 놀란 듯 떨어뜨렸던 기억이 난다. 그때의 나는 그 아저씨가 무슨 이유로 나에게 손을 뻗었는지 알지 못했다.



있고 있었던 이 날의 일을 다시금 기억하게 됐던 때는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즈음이었다. 나는 교복을 입고 어두컴컴해진 가로수 길을 혼자서 걷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나이를 알 수 없는 모자를 쓴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서로의 몸이 가까워질 때 쯤 남자는 불쑥 손을 뻗어왔고 그 손은 내 가슴에 닿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내가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남자가 나를 지나쳐서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리는 조용했고 어두웠다. 소리를 쳐야 했을까, 달려가서 붙잡고 흥분 두들겨 때렸어야 했을까.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왜 제 때 대처를 하지 못했는지 자책해야 했다. 무엇이 나쁜지 누가 나쁜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지만, 무기력이라는 단어는 한동안 내 몸 속을 유유히 헤엄쳐 다녔다. 엄마에게 그 날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대답이었다. '나는 지하철에서 반대편으로 올라오던 남학생에게 가슴을 양 손으로 잡힌 적이 있어. 그 때는 너무 황당해서 울음밖에 안 나왔어. 그런 일도 있었지. 나이가 드니까 잊어버리게 되네.' 라는 아주 슬픈 대답이었다.

역.선.이.필.요.해! ① 자방달* 선생의 조언이 필요한 이컬의 기억

* 자방달: 자기방어훈련의 달인

대학에 들어와 여성주의를 접하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고 난 뒤에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파이팅할 수 있는 용기와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어린 내가 내 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곧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하게 되는 아주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 작년 여름의 일이었다. 아침의 버스, 버스 안은 출근하는 회사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영

평이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사람이 많아서 그저 다른 사람의 신체가 나의 것과 맞닿아있는 느낌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몸을 부대끼고 있는 느낌은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느낌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불쾌함이 어떤 것인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그저 내가 민감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불쾌함이 진짜인 것인지'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나와 닿아있는 상대방이 정말 나에게 불쾌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손을 가져다댄 것도 아니었고, 옷 속으로 무언가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다. 등 쪽으로 불쾌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아니었다. 무언가 닿아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닿아있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크게 소리쳐서 '치한이야'라고 부를 만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망설이던 나는 옆에 매고 있던 가방을 엉덩이 쪽으로 옮겨서 불쾌한 감각을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가방은 다시 밀려서 옆으로 왔고, 나는 그제서야 이 불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소리를 내야 할까, 뒤를 돌아보고 욕을 해주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사이에 나는 내가 내릴 정류소에 다다르고 말았다. 물밀듯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도 버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내리자마자 뒤

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똑같은 정장 차림을 한 회사원들의 뒷모습밖에 없었다. 허탈감과 불쾌감이 뒤섞인 짜증이 나를 덮쳐왔다. 왜 나는 내 감각을 나의 느낌을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일까. 왜 굳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거나 나의 오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려를 했던 것일까. 꼭 전 주먹 때문에 손톱이 살을 찢려서 아파왔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었다.

마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얘기하듯이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씁쓸한 술자리의 이야기를 하듯이 아주 짧게 조금씩 호흡을 골라내면서, 중간에 몇 번이고 줄담배를 피우면서 이 글을 적어 내려갔다. 이 글을 쓰고 있던 나는 마치 사건의 조서를 꾸미듯이 사건 현장의 사진을 찍듯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적어 내려갔다. 온 감각을 그 때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에 쏟으면서 마치 무언가를 보기 좋게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적어 내려갔다.

기억을 되새기는 것은 나의 마음을 상충생동하게 만들었고, 그 때의 사건을 만약과 이프를 넣어서 멋지게 파이팅하는 나로 재현하는 망상에 빠지게 만들었다. 나는 끊임없이 혼잣말을 했다. 온갖 불만에 가득차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으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아이의 얼굴로 말이다.

이러한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나의 밤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간다. 밤을 허얇게 새고 나면 괜찮아? 라는 걱정에도 기분이 나쁘고 동생이 그냥 방문 앞을 지나가지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 하지만 머리 속에서는 또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랫말이 끊임없이 흘러간다.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복수할 거야." 이 노랫말의 가장 좋은 점은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는 점인데 분노를 조절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나는 오늘도 이 노래를 부른다.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다. 나는 언젠가는 모조리 이 가해자들을 찾아내서 제대로 파이팅백을 해줄 것이다. 죽지 않는다. 복수할테다. 흥. 코를 뽀뽀해줄테다. ●

by 이컬

그런 때가 있었더랬지. 내가 긴 머리의 신입생이던 때. 일주일에 한 번 성폭력 가해자를 만나던 때. 부들부들 떨며 친한 언니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던 때.

그때 참 열심히 살았다. 나는 매일 12시 20분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 근처에서 내리면 1시였는데, 이미 환승이 되지 않는 시간이라 버스로 세 정거장을 걸어갔다. 한적한 큰 길에는 나 혼자 있거나, 간간이 어두운 사이로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나랑 술 딱 한잔만 해요."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갈게요."

그들이 내게 던진 그 거짓말들. 지금은 너무나도 뻔한 그

거짓말인데, 그 때는 경계하지도 않았다. 경계하기에는 너무나도 피곤했던 나와, 너무나도 추웠던 날씨와, 엄청난 유혹의 손길을 던지는 차(!). 아싸리 고맙습니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집으로 안 가고 한적한 길로, 한적한 길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 집으로 가겠다고, 내려달라고 말하는데, 차를 멈추더니 내 허벅지를 더듬으려 들었다. 뺨에 에에에 괴성을 지르고, 차 문을 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썼다. 그 놈도 놀랐는지 손을 멈췄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깜짝 놀랐잖아. 여튼 그럴 생각이 없으면 조심해야지요. 차에 타니까 그럴 생각이 있는 줄 알았지."

흔계를 들었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나 집에 데려다 주지만 다른 나쁜 아저씨들은 안 그

액.선.이.필.요.예! ②

어찌저찌 애를 써도
파이트백을 못 하고 살지만
하고 싶어 죽겠는

여학생 J의 이야기



런다고. 아, 특히 이 시간에 사람은, 특히 이 시간의 남성은, 특히 아저씨는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 때 배웠다. 성폭력 가해자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잘 들어가. 밤에 조심하고."

억울했다. 너따위에게 들을 소리가 아니야. 내 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집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잠시나마 차를 태워 주겠다고 말했고, 그 제의를 나는 받아들였어. 확인하려고, 지지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다. "늦게 들어갈 때에는 택시를 타고,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생각해 보아." 또다시 억울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조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준 그 마음에는 고맙았다. 그래도 억울했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다. 성폭력은 가해자 탓이니까!



그리고 나는 머리를 잘랐다. 어떤 현실적인 조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바꾸기라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절박해진 것이다. 그렇게 한동안 해방되었다. 내 뒷모습은 누가 보기에

남자아이 같았다. 뒤에서 땀방울이 따라오는 차도, 괜히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거는 사람도, 술을 먹으러 가자고, 용돈을 주겠다고 손목을 잡는 사람도 없어졌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폭력이 없어졌다고 내 일상에서 성폭력이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 어린이 저편에서부터 성폭력 가해자들을 한 명씩 토해낸다는 사실을. 내가 저항하기에는 많은 가해자들이 힘이 세다는 사실을. 그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공포로 채웠다.

(심지어 최근 드라마 커피프린스의 여파로 고온찬 스타일이 대유행하더니, 가해자 아저씨들의 공격 대상이 머리가 짧은 여성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젠장. 그들은 언제든지 나

의 대응을 비롯으며 넘어설 수 있었다.)

어들은 언제부터 나에게 무서운 것이었을까? 왜 나는 어두운 곳을 보면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밤길에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왜 눈을 마주치지 못하나?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힐끗 쳐다보기라도 하면, 왜 나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뒤돌아보며 그 사람이 등 뒤에서 돌아와 공격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가?

여성주의자로 살기로 노력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나는 아직도 밤길이 무섭다. 아마 앞으로도 내내 무서움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하여 소리지르는 상상, 욕하는 상상, 때리는 상상도 많이 한다. 그러나 이미 움츠러든 나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실제로 행하기는 너무나도 힘들다.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고작 경찰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사실은 나도 파이트백 하고 싶다. 내 목청과, 내 주먹과, 내 몸으로, 내 힘으로, 가해자들이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겁을 주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나 다 깔보지 못하도록 힘을 보여주고, 두고두고 생각하면 몸서리를 칠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싶다. 두 번 다시 그럴 수 없도록.

사회가 바뀌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 성폭력을 옹호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어. 내 직접적인 생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안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나의 경험, 나의 승리의 경험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그렇게 살아내고 싶다. 그것은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액션이기도 하고, 내가 이 구조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의 틀을 깨부수는 움직임이기도 할 것이다. ●

by 그래서 송아송님 도와주세요! 자몽

난, 준비된 여자!

하나, 내 몸의 폭을 넓히기
한눈에 보기에 불편한 옷과
신발을 신고 몸을 최대한 알게

보이면서 일자로 종종걸음을 걸어야만 될 것만 같은 압박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 그렇지만, 만약 돌발상황에 닥쳤을 경우에 더 안정감있게 대응할 수 있는 포즈는 일명 팔자걸음이라고 불리는 그 자세입니다.

친구와 한번 해보세요. 발을 11자 모양으로 서 있을 때는 앞,뒤로 미는 공격에는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지만, 누가 옆에서 밀면 바로 넘어가버린답니다. 혹은 반대로 발을 평행선으로 하고 서 있으면 옆에서 들어오는 공격에는 넘어지지 않지만 누가 앞에서 툭 밀면 바로 뒤로 넘어가죠. 내 몸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다가, 유연성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세는 바로 팔자걸음! '여자가 그렇게 걸으면 안 예뻐보인다'며 내 걸음을 교정하려했던 사람들을 때려모며 한 마디 해줍니다. '나, 네한테 예뻐보이려고 사는 거 아니거든? 멍청아들아! 우리에게 내 몸이 편한 팔자걸음으로 건들건들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두들, 끊임없는 이미지 메이킹과 자기개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상한 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112에 신고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신호음이 가는 그 10초(혹은 그 이상)동안 우리의 정신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평소에 레퍼토리를 미리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밤같이 '저기, 저랑 술이나 더 마시죠'라면서 차근차근 거리며 다가오는 새끼에게 먼저 '야, 이 새끼야!'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쳐서 일단 웅얼하게 만든 후에, 112에 전화를 하는 척을 하며, 아직 경찰이 받지도 않았는데 '저기, 경찰이요? 아, 저기 지금 네네네 2번출구 앞 패밀리 마트인데요, 아! 그 근처세요? 여기 미친 놈이 있는데 바로 꺾어서 와주세요'라면서 쫓아가자 그 새끼가 정말 미친듯이 도망가더군요. 물론 저는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네! 바로 거기예요, 거기!!' 재가 지금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앞질러주세요, 노란색 옷이요! 네네'라면서 소리쳤죠. 그 자식은 미친듯이 출렁랑을 치더군요. 쫄쫄.

평소에 샤워기를 앞에 두고 리허설을 하거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누적되어 저러한 파이트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멋진 파이트백으로 쾌감을 느끼고 싶어요! 두근.



HANDLE WITH CARE
FIGHTING

엑.션.이.필.요.해! ③ 스트리트 파이터 송이송의 우당탕쿵탕 편지

난, 강한 여자!

하나, 내가 바로 무기다

난 사람들이 말하는 약한 녀자가 아니랍니다. 내 두 손가락과, 손뼉

은 검지와 중지를 약간 구부려 힘을 주면 상대방의 눈을 영영 멀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고, 하이힐을 신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발뼉을 부러뜨리고도 남을 혼란한 무기가 되지요.

그리고 지금 내 양손을 사용해서 내 몸의 딱딱한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머리로 박치기, 턱으로 찌기, 팔꿈치로 가격하기, 무릎팍으로 찌기 등등, 지금껏 한번도 내 몸에 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이 세상을 맘껏 욕하면서 팔꿈치로 위에서 찍어누르는 연습 이십 번째보는 어때요? 펙! 펙! 펙! 쿵! 탁!

아, 그리고 내가 옆으로 매고 있는 가방은 상대방을 후려칠 수 있는 좋은 도구랍니다. 그 안에 있는 전공책의 모서리는 더더욱 나이스!

두들, 사.자.후와 함께 난 다시 태어났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동물이 온몸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거 있죠? 그들이 당연하다고 예상하는 '어미' 혹은 '까야' 하는 반응 대신에, 순간적으로 몸을 크게 만들면서 저음으로 '으아아아악' 혹은 '우어어어악' 하면서 과물같은 소리를 내면서 몸을 웅크리지 않고 힘을 딱 주면,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밤거리의 찌질이들은 당연히 예상되는 레퍼토리에만 상상력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 당황하곤 하죠. 이런 건 괜히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시비걸고 가는 아저씨들이나, 골목길에서 자위하고 있는 자식들에게도 꽤 쓸모있는 방법이라구요!

난, 무서운 여자!

하나, 트라우마 심어주기

자몽과 이철의 글에서 느낄 수 있듯 대부분의 여성들이 밤거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젠,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거죠. 길거리에서 아무 두려움없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하고 있는 녀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달아나...는 건 제 취미이지만,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옆에 지나가면서 '어머대고

더러운 x을 까발리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라고 소리치고 지나가거나, (바로 위에 나온 사자후와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돌멩이를 던지고 지나가는거죠. (씨던 걸 중간에 멈추는 내공도 없는데다가 바지도 내려가 있고 술에 취해 있어서 절대 못 쫓아온다는!)

길거리가 지네 안방인 양, 아무런 두려움없이 활보하는 새끼들에게, 너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알뜰다운, 그러나 개념없는 자놈들에게는 후덜덜한 세상을 위해 함께 움직여보아요.

뎃붙이기!

이 글을 읽으면, 마치 스트리트 파이터로 돌변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실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할 때, 몸이 굳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요. 하지만 그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몸을 강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든 저들의 음모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밈들을 나눠가며, 또 서로의 파이트백 경험을 공유하며 조금씩 마음의 힘(1)과 몸의 힘을 키워나가고 싶은 마음에 이런 글을 써보았답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들과 함께, 몸훈련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한 가지 이상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지난 이년동안 태권도와 농구, 축구 스윙댄스 등을 멋진 언니들과 함께 배워가며 몸과 마음이 훌쩍 성장해서, 마초와 변태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스트리트 파이터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고픈 언니들에게 좋은 사이트 소개하면서 저는 또다시 길거리로 나가보렵니다. 어디선가, 또 만나요! ●

by 우리는지금보다더강하게 송이송

- ▶ 농구가 하고픈 언니들! a-sister [아시스터]
<http://www.unninet.net/basketball>
- ▶ 축구가 하고픈 언니들! 픽토 야간 축구회
<http://www.unninet.net/soccer>
- ▶ 언니들과 함께 스윙댄스! 스윙시스터즈
<http://cafe.daum.net/swingsisters>

‘소문자 남성 모임’ 날개짓 시작!!

나는 힘들다,
지친 남성, 억눌린 남성의
푸념으로부터

- 나누기의 쓸 -

나의 지난, 지난한 경험들이 내려받은 거부정성과 함께 했던 것은 명백하다. 끊임없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언어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 언어들을 배우는 것은 나에게 있어 나를 완성하는 길과 같았다. 좀 더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좀 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훌륭한 남성이 되는 길이었다. 때로는 불행하게, 때로는 로맨틱하게 내가 가진 권력들은 당연한 것이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살면 되는 거였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세상의 기복대로라면) 아버지의 삶으로

부터 나는 억눌릴 수 없다. 실제로도 '집에서 살았던' 남성 언어 밖에 모르던 시절 나는 전형적인 남성의 삶이 나를 전면적으로 억누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고, 세상이 녹록치 않은 만큼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힘들지만, 왜 힘든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 '원래 그래'라는 말은 워낙에 그만큼 확실적이고 간단하다.

그 모든 '원래'들을 집어치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을 때였다. 심장이 먹먹해지는 기분.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뭐 한날 목격배였다. '누군가와 같이 살 고민'을 한 건 그때부터였다. 정신이 없었다. 나를 쥐고 잘라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을 더듬고, 손짓과 발짓을 곁들였다. 그렇게 하나 둘씩 나와 살고 있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손짓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집에서 살면' 나를 집 밖으로 끌어내었다.

- 조자리의 쓸 -

'소문자 남성 모임'을 해보자는 공시령의 제안에, 오랫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사실, '나는 이성애자 남성이며, 한동안 남성들과의 일상적인 관계 맺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래 맞아. 나는 한동안 남성 네트워크에서 남성들끼리의 남성들만의 격한 '우정'이라든가 '외리', 또 그 안에서 '위계'와 '서열'이 강조되고 폭력적이고 성차별적인 배려 없는 수많은 언어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남자가 되어가는' 문화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책세게 반복학습 되었으며, 나에게 남은 과제는 그러한 가치들을 내면화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나로서는 곤욕이었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느낌이 든 순간, 나는 남성들과의 지리멸렬한 관계들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여성주의적 관계맺기를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주로 고민을 얘기하고 '수다'를 떠는 대상은 여성들이거나 나처럼 '지친' 남성들이었다. 심지어는 일부러 일 년 반 가량을 일부러 전과 같은 술자리를 피해 다닌 적도 있다. 술과 술자리는 나에게 고통스런 관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들에 대해서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었다. 덕분에 쓸데없이



상처를 받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서 좋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도 간헐할 수 있었다. 오히려 전보다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생각을 나누는 남성들이 늘어났다.

기존의 남성중심적 관계맺기와 가부장제적 규율에 지친 남성들인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관계 맺기를 바란다. 가부장제의 억압과 불평등을 남성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한 여성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가부장제에 '포섭' 당했거나 적극적으로 내부에 '참여' 하는 위치에 놓여진 남성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던 남성 자신을 향한 가부장 권력의 억압과 폭력성, 강박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와 같이 여성주의는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문화에 분노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주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들과 여성주의 언어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비판하고 깨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쉽게 지치거나 억눌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자아비판이나 성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남성의 경험을 여성주의 언어로 풀어내고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른 남성들과 소통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기존의 남성성에 대한 도전과 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문자 남성은 무엇?

우리는 '소문자 남성 모임'의 결성을 통해서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거듭나고자 한다. 남성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바로 페미니즘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주의적 이념을 언어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 삶의 언어와 정치적 언어의 일치됨을 꾀하는 움직임이며 더 이상 억눌린 남성 혹은 지친 남성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남성, 까발리는 남성, 분란을 일으키는 남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모임의 이름 '소문자 남성'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문자 남성은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이 '히스테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소문자 자아라는 개념에서 연유한다. 소문자 자아/나는 그와 대립되는 개념인 대문자 자아/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본질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변화가능하고 다양하게 행동하면서 개인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아를 의미한다. 남성중심적인 대문자 자아-계몽적 이성, 개발지상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규율, 법 등-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억압하고, 백인남성이성애자 중심의 '정상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한 대문자 자아는 정상성에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자아의 모습을 긍정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해왔다. 반면에 소문자 자아는 '히스테리'와 '변덕'과 같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언어로서 대문자 자아에 의해 억압된 '정상성'에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자아를 자유롭게 드러낸다. 그러한 소문자 자아를 재현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소문자 남성'들은 여성과 남성을 억압해왔던 가부장제와 지배적 남성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다양한 주체들의 존재를 긍정하고 타자화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문자 남성은 나 자신을 위해서, 친구들과의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같이 살기를 고민하는 페미니스트이고자 한다. 그러한 주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



리는 남성페미니스트의 독특한 모순적인 위치, 가부장제의 '내부자'의 위치를 활용하여 가부장제의 모순에 대해서도 다른 각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문자 남성 '모임'?

"행복한 공동체는 각각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 경험들의 차이에 기반하여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나와 너는 하나일 수 없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너죠. 하지만 나와 너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 나누기, 2008 우주를 전복하는 새나기를 위한 안내서 중

여성주의적 언어로 말하고, 여성주의적 관계를 맺고, 여성주의적 실천을 하는 것은 그저 혼자서 골방에서 책을 읽어서 될 일도 아니고, 어떤 강성 페미니스트의 따끔한 충고와 훈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 지식은 있으되, 아무런 실천도 하지 못한 채, 여성주의에 대한 은근한 동경과 여성주의에 대한 정신적 지지는 그러한 지식을 얻은 자신을 조금도 실질적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오래전부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네트워크 만들기에 충실해왔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의 동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삶의 언어와 정치적 언어를 동일시 할 수 있었으며 여성주의적 성찰과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남성들은 그간의 역사 속에서 공격 영역의 수많은 배타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왔지만 그것은 억압자로서의 남성 지배-가부장 집단으로서의 네트워크였다. 그러나 가부장제에 저항하고 여성주의 언어로 자신의 경

험을 이야기하는 남성들의 관계 맺기가 거의 전무함으로써 남성들이 함께 모여 가부장제의 억압과 부당함에 대해 말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남성들이 페미니즘의 정치적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주의의 공동체와 연대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특수한 성별 권력의 위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남성의 성별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남성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는 분명히 남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남성만을 위한 것, 남성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곳은 결코 아닐 것이다. '소문자 남성 모임'에서는 남성간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적극적인 남성들의 여성주의적 실천이 될 것이다.



교내 성폭력이나 남성 중심적 술자리 문화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유치한 성별대결의 구도로 몰고 가며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여성과

여성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토해내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것은 자명하게도 '뺨기, 비아냥거리기, 비꼬기, 궁시랑대기, 실컷 수다 떨기' 등이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잘났다'는 식의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에서부터 탈피하기, 당신들을 비꼬는 건 우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때문에, 당신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성찰 한번 안해본 그 권력들 때문에 억압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까발려야 하기 때문이다. 망설이지 말고 스스로를 깨부수자. 누군가를 괴롭히며 사는 삶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운가. ●

by 글쓰다가 새나기 작별! 궁시랑, 나누기, 조자리

네 일이 아닌데 네가 왜 나서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
네가 모든 일을 다 아는 양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냐던 사람들도 있었지.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순간, 터져 나올 외마디,
"그래 / 맞아 / 그거야 / 너도 그래?"
"어떻게 아느냐, 너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공모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권력자들,
우리가 서로의 눈물을 닦는 순간, 슬슬 뒷걸음질 칠 폭력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순간, 채여 넘어질 억압들,
우리가 손을 맞잡는 순간, 하얗게 바스라질 가부장제.

빨강고 노랑, 노랑고 파란, 파랑고 뒤섞인,
뒤섞이고 꼬여 튼튼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들,
나의 연대는 오색줄, 공감의 연대가 시작된다.



나의 연대는 오색줄

[날려라 빗자루!]¹⁾ 와 연세대분회 조합원분들이 함께 나눈

중년여성, 여성노동자 로서의 삶 이야기



기획단 모두가 그랬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년여성의 목소리가 여성제에 울려 퍼진다고 했을 때 [날려라 빗자루] 팀은 연세대분회조합원님들을 단번에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집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가장 자주 그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오랜 시간 같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중년여성'이니까요. 그럼에도 학내에서 청소 미화 여성노동자분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건물 복도도, 강의를 듣는 강의실도, 화장실도, 항상 그분들의 노동이 거쳐 간 자리인데 말이죠. 다른 중년여성들이 그러하듯이 대부분 4~50대이신 여성노동자분들은 그저 '아줌마'라고만 불릴 뿐, 그 분들 개개인의 삶이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시공간을 공유하는 학생들도 여성노동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는커녕, 그 존재 자체를 간과하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 분들과 중년 여성으로서 노동한다는 것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눴던 [날려라 빗자루] 팀이 우리만 듣기 아까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완전 소중하신 조합원님들과의 인터뷰! 짜잔~ 기대해도 좋아요.

학내 한 건물 조합원²⁾님 이야기

학내 한 건물에는 @@ 조합원님과 ## 조합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 큰 건물을 단 두분이 모두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 노동강도를 누가 짐작이나 할까요.
하지만 언제나 건물 휴게실을 방문하면 오순도순 즐겁게 담소를 나누시고 계시는 두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님 (이하 @@)

조합원님 (이하 ##)

일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

날려라 빗자루(이하 날비) : 일하시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육체적인 거 말고는 뭐 다른 거 힘든 거 없으세요?

@@ : 물품을 안 대 주니까 스트레스 받지.

: 나는 몸은 괜찮아.

@@ : 고무장갑, 물비누 이런 거 하나도 안 왔어. 회사에선 뭘라고 거짓말하고...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통째로 휴지 빼가고 물비누 빼가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또 그 통이 없으면 안 준다고.

: 명선(명역업체 이름) 때는 경비하는 아저씨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휴먼(명역업체)이 하면서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밖에 일만 하게 하고 안에 일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느는 거지. 경비아저씨들한테 다른 일 도와주다가 뭐 없으면 물어내라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도 종일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지...

@@ : 가는 데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어디는 어떤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서...

날비 : 궁금한 게 왜 항상 경비하시는 분들은 남자일까요? 참...

@@ : 여기는... 문 따다 주고 그러는거만 하는데 뭐...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웃음)

1) [날려라 빗자루]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 분들과 일상적인 연대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총여학생회 산하의 팀입니다. 여름방학 때 학내의 몇몇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조합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2) 연세대학교의 미화 노동자 분들 대부분은 연세대분회의 조합원입니다. 그 동안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낼 통로가 없었던 노동자분들은 연세대분회를 꾸리시면서 부당한 임금,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으쌔으쌔하고 계시지요. '아줌마', '아주머니' 혹은 '어머니'라는 호칭보다는 여성노동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으시고, 여성으로서 즐거이 노동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게 하고 계시는 여성노동자 분들을 부르는 가장 적합한 호칭은 '조합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내 호칭은 조합원님이네요.

즐거우니까 한다!

날비 :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일하면서 즐거우실 때는 언제예요?

@@ : 우리가 뭐 둘이 잘 맞아서 우리끼리 서로 챙겨주고 그러면서 재밌어.

: 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야지.

@@ : 사람 여럿 있는 데 있어보니까, 서로 싸우고 그

러면 편들어주기도 그렇고... 나는 관절도 아프고 그런 데, 이 친구가 잘 챙겨줘서 좋아!

날비 : 참, 혹시 일 구하실 때 여기 말고 다른 후보는 어디였어요?

@@ : 우연찮게 소개받아서 왔는데 보아야 뭐...

: 내가 이 일 안할 땐 백화점 이런데서 청소일 하는 거 되게 안돼 보였는데...

@@ : 내가 하게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지

: 이제는 이런 일 밖에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 (중간에 한 학생이 휴대폰 충전 말긴 걸 찾아갔다)

날비 : 학생들이 저런 부탁 자주 해요?

: 아니, 이런 건 처음이야!

날비 : 근데 학생들이 두 분 여기있는 줄 어떻게 알고...

@@ : 다 알지, 여기 학생들은 다 알어

(두분) : 학생들이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도 쥐어주고 있잖아, 땀 났을 때 시원하게 인사해주는 학생들도 있고...

: 가끔 학생들이 쓰레기 잘못 던져놓고 가고 그러면 있잖아, 웃으면서 '학생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그래 짜증내면 서로 안 좋잖아

나이가 든다는 것...

날비 : 30대, 4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있어서... 그럴 때보다는 편해지신 거네요.

@@ : 집에 있으면 심심해 공상이나 놀지

: 여기 있으면 또 이쁘게 화장이라든가 항상 하잖아

@@ : 난 땀이 많이나서 화장이 자주 지워져서 여름내 안 하다가 오랜만에 했지

날비 : 듣다보니까 나이든다는 게 나쁜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맞는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고... 환경이 때 우울증도 많고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일 하면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두분) : 그래도 이제 더 안 먹어야(웃음), 젊은 게 좋지

또 다른 건물 조합원님 이야기

이 공간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생활공간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생기 넘치는 학내 건물에서 청소미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총 다섯 분이세요. 역시,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학생들과 학교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들과 화장실의 모든 공간을 청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죠.

앞 건물 조합원님들과는 다른 건물, 조금은 다른 노동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조합원님들의 이야기는 앞 건물 조합원님의 이야기와는 살짝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 조합원님 (이하 &&)

** 조합원님 (이하 **)

OO 조합원님 (이하 OO)

%% 조합원님 (이하 %%)

☆☆ 조합원님 (이하 ☆☆)

연세대학교에서 노동한다는 것

날비 :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 : 누가 가지고 해서, 백 얼마하는 식당있다가 2005년에 왔는데 그때 58만원을 받았어, 햇수로 4년 됐지 그때 그거 받고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

%% : 보험료 떼고 그래가지고...

****** : 나 같은 경우는 3만원 넘게 떼, 난 숙녀복을 34년 하다가, 아는 언니가 세브란스에서 일한다고 나도 소개시켜줘서... 이제 4개월 됐지, 할 수 있냐고 하길래 누군 날 때부터 했어요? 하고

OO : 여기 실장님이 우리 산악회 회원이야, 할 수 있겠냐고 하길래 나도 일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날 때부터 잘하니? 했는데... 진짜 알아봐줘서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가, 알아봐준 사람 봐서 시작했지, 처음에 너무 고 되서 손도 많이 아프고 했지만 (팔꿈치 언저리를 가리키며) 여기도 다 이렇게 되고

%% : 여긴 일이 많아서 나누지도 못해 (마찬가지로 팔꿈치 언저리가 단단하게 부른 것을 보여주시며) 여기서 팔 이렇게 안 됐으면 간첩이야

☆☆ :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대 잡아서 팔이 다 이래

몸 식는 청소 일, 산재처리도 안된다니...

날비 : 사실 이게 산재가 다 되어야하는데...

☆☆ : 동서(용역업체 이름)가 못되고 짜서 그래, 이대 때도 고용보험 안 해줬어

OO : 난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팔목을 하도 써서 그쪽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연결되는 신경이 안 통한다, 수술은 되게 간단한데 2주 쉬어야 된다고 그래

%% : 아들도 못 신다 그래

OO : 2주 쉬다 그러면 그건 사표 써야지

날비 : 나이에 따라서라든가... 필요한 제도가 있는 거 같아요... 이를테면 3,40대에게는 생리휴가나 탁아소 같은 거요, 산재 같은 것들도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 : 어디 아프다 그러면 함들면 관두라 그러는데 뭘

%% : 약은 다 내가 사지

OO : 진통제 맞아가면서 일했어, 아프면 치료받고 오게 대체 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 : 이를 삼일만 쉬겠다고 해도 팔팔걸

OO : 간단하다는데 수술도 못하고...

가사노동, 당연한 것???

날비 : 새벽 두 시 반에 나오시면 집안일까지 어떻게 하세요?

OO : 저녁에 하지, 쉬는 날 몰아서 하고

%% : 그런 건 밖에 나와 일하려면 다 감수해야지

날비 : 자제분들이 좀 도와주거나 하지 않나요?

%% : 자기 방이나 좀 치워? 군대갔다면 한 일주일의 자기 이불 개고 먹은 거 설거지정돈 하더라, 근데 오래 안 가

날비 : 너무한단...

조합원님들 : 학생들은 청소해?

날비 : 아뇨(죄책감에 몸둘바를 모름), 흑흑, 저도 할 말 없어요, 자취해 보니까 정말 가사노동이라는게 생색도 안 나는, 신경쓰이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조합원님들 : 것봐.(웃음)

중년여성으로서 일한다는 것

날비 : 이 나이의 중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모두) : 청소밖에 없애

%% : 식당도 여기 아워홈(학관식당) 같은 데나 받아 주지...

날비 : 육체적으로라든가 특별히 힘든 건요?

&& : 학생들 낚서 좀...

%% : 생리대 여기저기 댕 붙여놓고,

OO : 그것 좀 휴지로 싸서 버리면 다했나?

&& : 같은 여자끼리라도 부끄러운 게 있다고,

☆☆ : 그런 스트레스가 힘들지

%% :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스스로 힘들지

☆☆ : 전에는 누가 물을 제대로 안 내리고 가길래 뭐라고 좀 했더니 나중에 '욕쟁이 아줌마 없겠지?' 하고 화장실 들어오더라고 자기들이 먼저 잘못된 건데...

OO : 학생들 물도 발로 내리고, 변기도 신발 끈 고쳐

뭐는다고 발고, 올리고 내릴 때도 발로 하고...

☆☆ : 그래서 보면 그거 매일매일 걸레로 닦는 거예요, 그런다고.

%% : 내 집 변기도 매일 닦진 않는데 여기 와서 닦는 단 말야.

OO : 근데 여기는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

☆☆ : 등산객들, 뭐 별 사람이 다 오는걸.

날비 : 중년여성으로서 일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OO : 누울 병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톨이라도 버니까 좋지. 자식들한테 가끔씩 용돈 더 줄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도 내 돈이니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 특히 옆 세브란스에 암 병동 생각하면 감사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날비 : 하기가...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 : 100짜만 주면...

OO : 우리야 매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어대야.

시간과 사람 수 관계 상 두 곳밖에 못 들렀는데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자신의 생활공간인 건물의 조합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건물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그러나 정이 듬뿍듬뿍 넘치는 조합원들의 휴게 공간을 찾아가서 지면관계 상 못 실은 조합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도 해보세요. 예상 외로 조합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점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연세대학교라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열악한 강의실 환경이나 화장실 시설, 등록금 인상, 무리한 노동강도 등에 대해 문제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조합원들과 학생들 모두 마찬가지이니까요. 그 대화 속에서 느낀 부당한 교육/노동환경에 대한 분노를 정당한 노동권/교육권에 대한 주장으로 소리 높여 외쳐도 아주 좋겠지요, 그것이 연대가 아니고 뭉치 연대겠습니까.

똑똑, 작은 문을 두드리시고 연대의 시작을 함께 해보아요, 후, 날려라 빗자루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날려라 빗자루의 문도 당당히 두드리시는 게... 하하하 죄송합니다. 홍보입니다. (하지만 진심이에요.) ●

* 인터뷰 진행과 속기와 정리는 거울과 유나가 이것 저것 나눠가며 함께 했습니다.

영화 <동거, 동락>에 나오는 딸은 엄마에게 딸도를 선물하고, 여느 드라마를 봐도 엄마랑 딸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는 낯간지러운 얘기들을 잘 하던데, 나는 왜 이리도 어려울지 모르겠다. 어버이날이나 엄마 생일날 겨우 편지로나마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하고 싶은 말과 마음을 전할 뿐이다. 20여 년 동안 엄마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 했던 우리들은 씁스럽지만 엄마에게 엄마 자신을 돌아다보게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았다.



지금 나이의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자 엄마 나를 되찾으려고, 내 몸, 건강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 그래서 맨날 운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지내지. 동창회에도 나가고 동창들이랑 산에도 가고.

라임 엄마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걸 찾고 있는,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적당히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오늘 옛날 직장 사람들과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편한 삶을 살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뒤흔친 삶을 산 것 같아. 그때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남은 삶은 일하면서 재밌게 보내야지.

오리 엄마 엄마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싶어. 기쁘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인생을 즐긴다고 말할까. 아무튼 지금은 엄마 자신에 대해서 엄마 스스로를 인정할 하니까, 내가 주체로 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있다는 거 그동안에는 엄마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라 자신이 없었어. 인간관계하고 신앙하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엔 사람한테는 가족과 하나님한테는 고맙았는데, 지금은 사람들한테는 엄마 자신을 찾고 신한테는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할까. 그래서 아젠 안정되고 편한데.

자몽 엄마 23년은 우리 부모의 딸로 살고, 25년은 아내와 엄마로 살다가, 이제 나로 살라는 걸음아를 시작하려는 여자인 것 같아 여자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50인데, 이렇게 많은 삶을 나나 여자로 못 살 있어 나로 살려고 한지 2년이면 이제 걸음아하는 거니까 잘 모르고, 모든 걸 다 해보고 싶고, 알이 안 보이고, 내가 뭐인지 알고 싶고 뭐든 입에 넣는 두 살짜리 애기같이 친구도,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도, 재산상태도, 내가 뭐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새로 재정비하고 정리하고 있어 특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나? 생각해보고, 일도 그렇고, 스타일까지도.

엄마에게 일이란?

사자 엄마 마자못해 해 돈 벌려고 다른 거 운동이나 하고 모임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고 노력하지

라임 엄마 현재 직장일(트렌트영어 선생님)에 썩 만족하진 않아 일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써주는 데가 없으니 실력을 닦았으면 더 나은 데에서 일할 텐데 하지만 가정일도 소중해 애를 많이 키우고 싶어서 좋은 직장 일을 그만뒀는데 결과적으로 못 넣었지 직장 안 다니고 가정일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 그러나 결국 하고 싶은 애를 많이 낳고 키우는 걸 못한 거에 대한 허전함은 있어 그럴 것 같았으면 다니던 직장(케나다 대사관)을 계속 다니는 것이 나았지

오리 엄마 가정을 세우고 친지, 이웃, 교회, 사회 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모두가 다 선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오리 엄마는 지금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오리 엄마 엄마는 진짜 목표가 그거야 하고 싶은 게 많아 안 해서 그렇지 아픈 사람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좋겠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 너무 욕심을 피웠나? 엄마는 온통 그런 생각밖에 없어 실리를 잘하고 싶나? 근데 살림보다도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 실리는 부수적이라는 거지 엄마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자몽 엄마 (우리 엄마는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기획을 했고, 지금 전업 주부) 2년 동안 가정경영만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서비스업인 것 같아 세탁업, 청소업, 요식업,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서비스업이니까 밥을 하면 남들이 잘 먹어야 하고, 뭘 하면 남들이 만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만족감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잖아 나는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해야 행복할 것 같아 예전에 남들이 다 싫어하고 망해도 내가 좋아하는 책을 기획하면 행복했어

자몽 다시 책 만들 생각은 없어?

자몽 엄마 책은 싫어 산에 꽃이랑 나무 심는 것 하고 싶어 내가 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자라는 걸 보는 게 행복하고

자몽 돈을 위한 노동은 아닌가?

자몽 엄마 돈이 되지 열매랑 요목 농사를 하면 되니까



www.uccooof.com

엄마의 엄마랑은 어떤 관계야?

사자 엄마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 생각 들지 술만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사는 모습이 싫어

사자 그럼 할머니는 왜 술을 먹는 것 같아?

사자 엄마 외로우니까 혼자니까 아무 구속 안 받고 자기 맘대로 살지 해이해지고 '뭘 대로 돼라' 하면서 사는 거지 애뜻한 관계야...

라임 엄마 (우리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조금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가련하고 불쌍해, 옛날 분들 위대하신 것 같아 그런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게

오리 엄마 달은 정이 많아 갈수록 엄마의 깊은 사랑을 알겠어. 한 때는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조금 담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은 엄마한테서 딸로서 받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잘실히 느껴

자몽 엄마 행복하지는 않고, 이해는 하는 관계

자몽 엄마는 엄마랑 오래 떨어져서 살았잖아, 그래서 생기는 감정은 없어?

자몽 엄마 응, 엄마를 안 좋아해서 솔직히 그림자가 없었어. 엄마가 좋아하는 것, 선택이나 결정, 엄마의 방식이 많은 못해도 늘 마음에 안 들어, 서로 성향이 달랐나봐



www.uccooof.com

엄마는 환경을 어떻게 생각해?

여성으로서 생명이 다한다는 부정적인 어감의 '폐경' 대신,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는 '완경'이란 표현을 사용함.

사자 엄마 별로 두렵지 않아. 열심히 살면 해결되는 거지 때가 되면 다 맞이하는 거야. 난 잘 받아들이며 적응 잘하고 순리대로 살아야지 젊어 보이려고 돈 쓰고 그러고 싶지 않아

라임 엄마 우울하지. 엄마는 특히 난소를 본의 아니게 여러 번 수술해서 완경이 빨리 왔고, 완경이 오면 우울해져 나도 이렇게 늙었구나. 5년 전 일이었다... 겪지 않으면 몰라. 짜증이 늘어났고 심리상태가 안 좋았어. 너무 빨리 와서 주위에 말하기도 그렇고, 남들과 다르다는 게 커다랗게 느껴져

라임 늙었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한 거야?

라임 엄마 모르겠네. 표현하기 어렵지만 많이 달라.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있고

오리 엄마 그거는 자연의 섭리잖아. 그거를 나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물론 그 시기에 육신적으로 아프고 약해져 몸에 변화가 와, 정신적으로도 약간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다를 거라는 불안감? 불안감?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있었거든. 막상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성숙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 전보다

자몽 엄마 편해질 것 같은 한데, 부작용은 무섭지. 우울증이나, 골다공증이나,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도 하고, 질은 모르지만 근데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까 기대돼. 내가 여자이긴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

사자 엄마에게 아빠란?

사자 엄마 동반자

사자 하하, 준비해둔 대답처럼 말하네. 너무 식상해

사자 엄마 없는 것 보단 낫지 필요할 때도 있어 전기 하수도 남자 손이 필요할 때 무거운 짐 들 때 차를 타야 될 때 통통어서 없는 것 보다 낫네

오리 엄마 환경 즈음해서 엄마를 찾았고, 엄마를 찾다보니깐 가족들에게 내 자신을 찾느라고 잘 못해했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내가 못해줘서 그들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그랬을 뿐이고, 우리 가족들 간에 각자의 상황을 엄마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잘 해주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족의 끈끈한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 같아 그 전에는 내가 뭘 해주고 안 해 주고로 사랑을 확인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엄마의 생각이야 현재

자몽 엄마 성인 네 명이 한 집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들이 이뤄내는 조화는 썩 좋지 못하지 각기 개성이 강한 여러 색의 산이 모여서 산맥을 이룬 것 같아

자몽 아빠는 어때?

자몽 엄마 남편으로서보다는 애인으로서 좋았던 것 같아 ㅋㅋㅋㅋ

자몽 그럼 언니는?

자몽 엄마 어렸을 때보다는 어른이 된 다음이 더 좋아. 면해 어려서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젠 어른이고 포기하게 되니까, 그니까 좋아.

자몽 그렇구나, 나는?

자몽 엄마 뭘 해도 믿음이 가지

자몽 나쁜 말 해도 돼

자몽 엄마 자식이 자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 믿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라서 그렇지 모르지만 그리고 맹목적이 되더라도 사랑하며 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지쳐서 나가떨어지더라. 아, 그리고 돈 좀 벌어서 스물 네 살인데 왜 돈을 안 벌어?

자몽 동생은 어때?

자몽 엄마 우리 가족 관계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대 피해자인 것 같아. 가족이 다 구성되어 있어서 안정감은 있었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발휘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

자몽 고양이들은?

자몽 엄마 점점 더 자식 같아서 더는 못 낳겠다는 생각을 해 ㅋㅋㅋㅋ 포로리가 집 나갔었잖아, 그 때 네가 없었던 때랑 마음이 비슷하더라구. 근데 집마다가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잠도 잘 오고 편하고 포로리가 자는 걸 보니까 예전에 애들 자는 걸 보기 좋아했다는 게 떠오르고 그래. 원래 애들은 잘 때가 이쁘잖아. 말도 없고 ㅋㅋㅋㅋ



'엄마에게 섹스란?' 같은 질문을 던져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나는 인터뷰 내내 섹스의 '섹' 자도 못 꺼내보았고, '아빠랑 여행가면 좋아? 여행가서는 안 싸우지?' 이런 소심한 질문들만 직렬시켰다. 오리는 인터뷰 후, 엄마에게 기독교 신앙은 세계와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이지만 오리가 그걸 듣기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걸 알아서 그 말을 안 넣은 채 하려다보니 엄마가 설명하기를 더 힘들어했다고 한다. 엄마랑 점심을 먹으며 인터뷰를 하고 온 자몽은 하루 종일 들떠보였다.●

by 섹스 인터뷰 꼭 성공할 거야, 사자

엄마가 아픈날에, 힘빠진 엄마에게 말을 건네면 돌아오는 건 나 때문이라는 무념론이다. 나 때문에 엄마가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문제는 왜 엄마는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엄마는 왜 나 때문에 힘들까. 이제까지 나에게 했던 엄마의 말들을 곱씹어 보면서 결국 엄마와 나의 관계를 고민하게 된다.

엄마는 주변의 불화를 못견뎌한다. 특히 가정의 불화를 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교육받았을 거다. 별로 화목하지 않은 우리 가족의 단상들이 엄마에게 너무 압박스러운 것이다. 내가 이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모든 불화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엄마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해 수다를 떨면서부터, 엄마는 나에게 좀더 '아들다움'을 기대했던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엄마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걸 수도 있다.

엄마는 나한테 아빠 편 좀 들어주라고, 아빠가 외로워하니까 잘 좀 해주라고, 말 억할 좀 하고 그러라고 말한다. 난 엄마편이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정중히 거절하면 쓴웃음과 함께 "잘 지 내자 좀"이란 말을 남긴다. 엄마가 생각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의 상은 결국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한 가정상'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아빠는 아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물론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없는 건 엄마의 탓이 아니다. 하지만 그건 나에겐 아빠를 확고히 하고, 엄마 내면의 이미징(엄마의 이름)을 다시 봉인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나를 억압했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망할놈의 가족제도인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빠와 싸울수도, 그렇다고 아빠를 가부장으로 고정시킬 수도 없었다.



엄마와 나

“야, 내가 왜 이려고 사는 줄 알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명청이도 아니고 니네 아빠랑 니네 위해서 한몫 불사르는 게 아니야. 그냥 이래야 내가 편해서 그러는 거야. 하기 싫어도, 내가 안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밖에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엄마는 그래서 내가 밉다. 어디서 뭐 주워들고 와서 엄마편 든답시고, 가족의 불화를 조장한다. 결국 모든 감정노동은 엄마가 하는데, 나는 학교로 도망가고, 숨고, 피하면 되는데 엄마는 그러지 못한다. 엄마가 할 수 없는 일들만 먼저놓는 말뿐인 나를 엄마는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집엔 한정된 역할밖에 없다. 온 가족이 '가족'의 전복을 꿈꾸지 않는 이상, 나의 폭로들은 나의 문제제기들은 어느 샌가 엄마에게 꽃혀버린다. 아빠는 도망가는 법을 알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법을 알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매일 도망치기만 하는 내가 미운 걸 수도 있다. 아빠와 내가 한바탕 싸우고 난 후, 집에 혼자 있을 엄마에겐 무너진 가족에 대한 압박과 결국은 자신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책임감은 악몽이었을 것이다. 아빠에게 전화해서 나를 이해하라고 설득하고, 나에게 전화해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러면서 감정노동하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결국 나는 길도는 말로 죄송하다고 하고, 함께 아빠 뒷담화를 할 때마다 생겼을 나의 대한 엄마의 신뢰를 매일 저버리는 것 같아 괴롭다. 결국 또 난 '엄마편이 될 수 있는 걸까?', '엄마랑 무엇인가를 꾸며낼 수는 있는 걸까?' 따위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도 엄마가 아프다. 너무 아파서 또 나만 보면 시비를 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만이라도 엄마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내 건방짐이 엄마와 나를 또 위협한다. 이 집안에서 생존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엄마는 갈 곳이 없다. 도대체 뭐가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일까.●

by 나누기

온 가족이 '가족'의 전복을 꿈꾸지 않는 이상,
나의 폭로들은 나의 문제제기들은 어느 샌가 엄마에게 꽃혀버린다.



1학기 때 보셨나요?

“엄마곰 엄마곰 아기곰”플랑



이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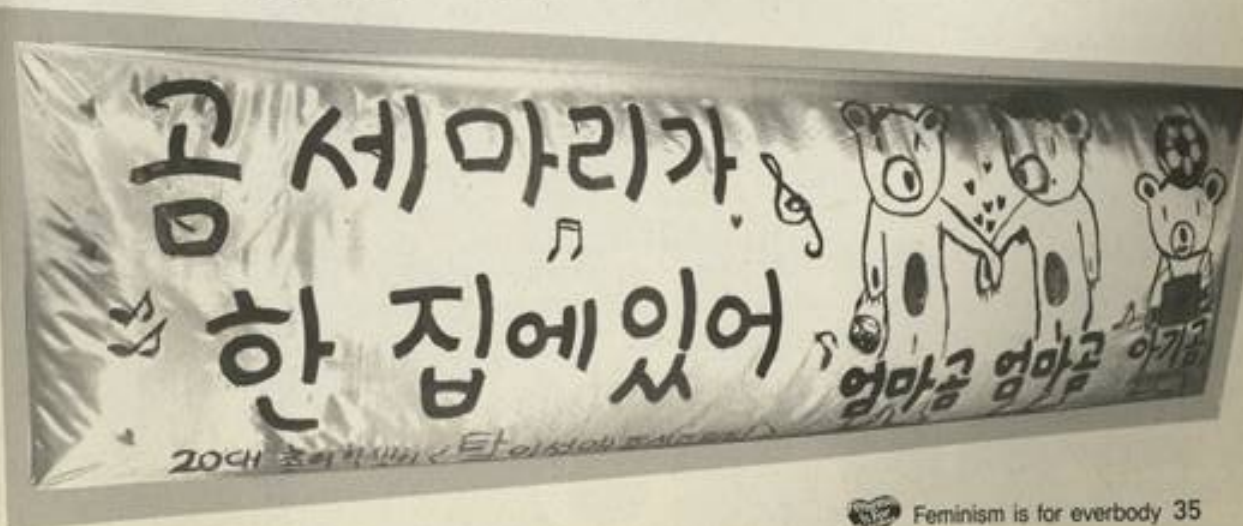
우리 소개를 잠시 하자면, 20대 총여학생회 <봄을 누비다>에서 이성애중심주의를 틈을 누비는 탈이성애중심주의 운동팀입니다. 말 그대로 이성애만이 정상으로 취급되고 비이성애정체성을 억압하는 이 사회를 이성애중심주의의 구멍이에서 탈출시키고자 이것 저것 해보는 팀입니다. 성소수자 동아리인 컴투게더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1학기 때 현수막을 걸었는데, 화려한 색깔로 (아마도?) 많은 관심을 받았죠. 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하자면,

● 노래 “곰 세 마리”를 패러디한 엄마곰 엄마곰 아기곰 현수막을 백양로 나무사이에 걸었지요. 아빠, 엄마, 아이 둘 ‘정상’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둘 일수도, 아빠가 둘일 수도, 아빠만 있을 수도, 할머니만 있을 수도, 엄마아빠가 여럿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정상’ 가족 비율은 50%도 안 되는데 이 “신화”는 깨지지 않고 있죠.



어떤 분은 “어떻게 엄마가 둘인데, 아이가 나올 수 있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생물학적인 관계가 가족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지도 않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럴진데.) 하지만 동성 간에 생물학적인 관계의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면, 지식인에게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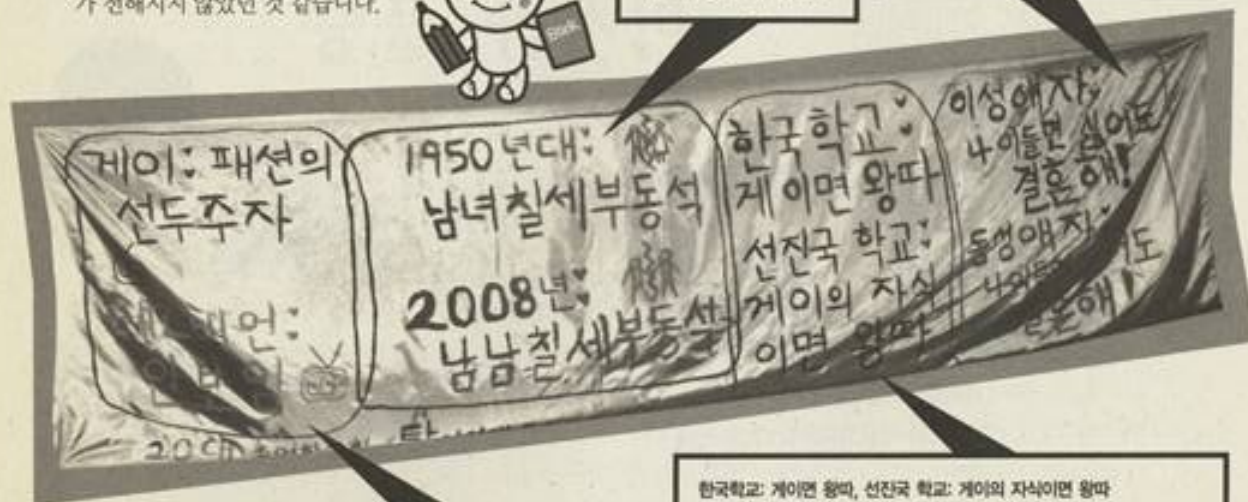
나의 연대는 오색줄

● 이성애중심주의 억압 폭로하기 현수막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짧은 문장 형식으로 폭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짧은 문장만으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50년대: 남녀칠세부동석
2008년: 남남칠세부동석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성애자: 나이들면 싫어도 "결혼해"
동성애자: 나이들면 싫어도 "결혼해"
정말 그들의 결혼을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처럼 그럴까요. 하고 싶은 사람이면 하기 싫은 사람이면 (원하는 상대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일단 나이 들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이성 결혼은 영 망진장이에요.



게이: 패션의 선두주자 레즈비언: 안 보임

요 근래에 들어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패션의 아이콘으로 텔레비전에 등장하곤 하죠. 하지만 레즈비언은 아직 텔레비전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남성동성애자는 패션과 미디어에서 팔리고 여성동성애자는 아직도 비가시화 되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국학교: 게이인 왕따, 선진국 학교: 게이의 자식이면 왕따

한국 학교에선 동성애자라는 게 드러나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곤 하죠.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꾸중을 듣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그나마 동성애 운동이 오래된 서구에 있는 소위 '선진' 국조차도 이런 일들은 많다고 해요. 비록 동성 결혼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이런 동성 부부의 자식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고 이 아이들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곤 합니다.



● 2학기 전시물 소개도 할게요.

백양로에서 만나는 동성 커플 실루엣

백양로 거리를 손잡고 다정히 걸어가는 두 남자, 벤치에 앉아 달콤한 키스를 하는 두 여자. 어둠속에서만 가능했던 그/녀들의 사랑이 이젠 낮에도 그림자로 남아 세상에 드러난다. 어둠과 구석진 곳만을 찾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랑을 해야만 하는 동성커플들. 사람들은 한 번도 직접 동성애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이 사회의 동성애혐오, 신기하다는 듯한 눈빛들이 우리들을 밀어냈기 때문일 뿐. 실루엣으로도라도 백양로에 벤치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노래가사 바뀌서 이성애 중심주의 비틀기

이성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는 넘쳤지요. 우리도 부르기 편하게 바꿔 불러 봤어요. "언니 너무 예뻐서 여자들이 가만 안 댈~ 언니 너무 예뻐~ 그녀를 보는 나는 미쳐~ Replay replay replay~." ●

by 이성애중심주의 운동팀과 컴퓨터덕



"네가 자꾸 그러고 다니니까 남자를 못 만나지." 짹! 이성애중심주의!
"너~는 여자답지 못하게 그게 뭐니?" 짹! 성별이분법!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이 학교에 있긴 해?" 짹! 호모포비아!
"사실 여학생들은 결혼 잘 하려고 대학 나오는 것 아냐?" 짹! 여성 비하!

"피해의식 때문에 페미니즘이니 뭐니 운동하는 애들 보면 한심하고 재수없어." 까악! 멍청이!



여성주의자로 살기는 너무 힘들다! 그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말들, 행동들이 사방에서 우다다두다다다 공격해오고, 당연히 관심은 것이라고 알고 살아왔던, 그래서 나도 가끔 무대저버리는 사고와 인식에 화들짝 놀라고 머리를 싸매게 된다.

일상에서, 일상적으로, 자꾸 까칠해지고, 자꾸 시비걸어야만 하고, 자꾸 적이 늘어나고, 자꾸 부끄럽고, 자꾸 더 많이 말해야 하고, 자꾸 실망하고, 자꾸 가슴이 급속하다. 그런데, 행복해.

여성주의를 접한 나에게는, 울지 못한 것에 분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공감하며 서로 손잡을 수 있는 친구가 생기고, 사회를 해집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시선이 생기고, 가부장제의 그들을 욕보이고 조롱하며 날아오르는 강인한 날개가 생긴다.

나는 여성주의 파이터. 여성주의 정신줄 하나, 울곧이 잡고 생각한다. 꿈꾼다. 살아간다.

내가 잡아야 할 정신줄



학내 화장실 까발리기

1학기에 학관 앞에서 진행되는 화장실 문화제를 기획했다. 총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그린 '이상적인 화장실'은 1인 화장실이었다. 장애가 있어도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고, 여성도 성폭력의 위험 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도 마음 편히 화장

실을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화장실이 가능함을 전사를 통해, 강연 등을 통해 학내에 풀어냈다. 화장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느

꼈던 건 많은 학생들이 1인 화장실이라는 구상을 낯설어한다는 점이었다. 내 생각은 이렇다. 현재의 화장실이 얼마나 형편없음을 안다면, 다들 낯선 1인 화장실에 대한 소망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화장실에 대한 상상력임에 동의할 것이다. 이 자신감은 화장실을 조사하

면서 더 강해졌으니... 형편없는 연세대학교의 화장실 실태를 간단히 훑어보자.

학관



- ① 유일하게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는 학관 1층...
- ② 장애인 화장실은 어디에도 없는데다가 (-_-) 심지어 턱도 있어서 휠체어 타고 들어가기 힘들게 생겼다.

상대 별관



- ③ 여자 화장실 표시는 있는데...
- ④ 허, 한 층에 여자 화장실 칸 하나? 어떻게 이럴 수 있겠 말, 도, 안, 돼 오래 된 건물도 아닌데...

법대



- ⑤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기는 하네요. 그러나 역시 여닫이 철문이라는 게!
- ⑥ 맞, 그런데 뎀 마대자루가... 화장실에? -_-

연희관



- ⑦ 학관과 마찬가지로 휠체어 출입은 지하면 가능하다. 주말에는 닫혀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평일에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듯한 걸.
- ⑧ 층을 번갈아가며 여/남 화장실이 있는 연희관에겐 남성 교직원 화장실이 따로...
- ⑨ 맞, 장애인 화장실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런데 뎀 여닫이 문? 심지어 무겁다...
- ⑩ 안에만 마대자루면 뭐하나요 ㅠㅠ



공대



- ⑪ 공대 1층 여자화장실,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저 빈 공간은 뭐지?
- ⑫ 계단이 나오는데...
- ⑬ 헐, 왜이리든 지하랑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계단의 압박,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화장실, 게다가 지하와 1층이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해야 하는 건 뭘까...??

요즘 나는 종종 '당연한 건 진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구나 '나'에게 편한 화장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의 화장실이 편하게 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이 사회가 만들어 낸 '핵이크'다. 화장실 뿐만이 아니다. 어떠한 제도, 사실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사실을 만들 때 주체의 시선은 남성의 시선이며 여성/장애인/트랜스젠더 등 사회적 소수자는 간과된다. 이러한 태도는 현재 중영도서관의 누드엘리베이터에서도 발견된다. 차마입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상'이 아닌 장애가 있는 사람과 트랜스젠더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내 구성원으로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누구나 당연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선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하다. 1인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상상할 수 있음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학교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도 하고, 현재 화장실의 형편없음을 학교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까먹을 때마다 못 까먹게 보여주기도 해야 한다. 학교의 지리공상 화장실을 당연히 생각해 생각하지 않고 화장실을 '누구에게나' 편한 공간으로 바꾸는 위와 같은 싸움은 상상할 때마다 할 수 있다. 괜히 단과대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화장실에 대한 불평을 큰 소리로 하면서 학교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본관 앞을 지나면서 총장 '님' 같은 사람이 보이면 더 크게 말할 수도 있다.)

얼마나 형편없는 지 조사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도 있다. 뭐, 1인 화장실 문화제 같은 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다.

by 학교 까발리는 거 지켜볼 때도 됐는데 유나

작년 레즈비언 문화제,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를 기억하나요?

문화제가 시작하자마자 테러당해 갈기갈기 찢긴 빨주노초파보의 현수막을 일일이 천테이프와 스테플러로 보수하고,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추며 "안녕, 잘개 동성애 혐오증~"을 노래했던, 전직 기획단인 저는 문화제가 어제 끝난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파창하게 빛나는 옥색기(일종의 무지개에서 남색이 빠진 것임, 퀴어비이성에 정제성 혹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상징)가 걸린 학생회관을, 어느 학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생회관'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나 레즈임'이라는 놀랄만한 문구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기획단들의 노란 동판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고요. 이러시면 자옥엘가 신디며 간곡한 태도로 설득하던 모 종교인 여러분들이 전시장을 떠나지 않아, 기획단들은 문화제의 의의를 설명하며 진땀을 빼기도 했지요.

아무래도 흔히 볼 수 없는 알록달록한 현수막과, 흔히 듣지 못하는 게이니, 레즈비언이니, 하는 단어들이 확실히 학내에 각인되고, 울렁울렁 퍼지기는 했나봅니다. 어째, 예전보다 호모포비아를 더 많이 접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보면 말이죠. 심지어 모 종교신문은 시기에 한 번씩 똑같은 어조의 연세대학교 관련 기사로, '기독교 학교들이 동성애에 왜 반대하냐'며 개탄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을 정도예요.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 더 많은 충동을 만든다는 것은, 적어도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이 화제가 공적인 자리에 더 많이 올라왔다는 뜻이니, 문화제가 지향하던 '비이성에 정체성을 가시화한다'는 목적이 아주 착실하게 달성되고 있나봅니다. 그러나 역시 변화를 바라기에는 이른지, 문화제 이후에도 호모포비아 사건들은 뱅뱅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의 고집스런 호모포비아를 화끈하게 알리는데 일조한 실제 사례들을 슬쩍 볼까요?



호모포비아 학내에서 정신줄 붙들고 살아가기

호모포비아 1. 세련된 척, 인정하 척 하지만아 제에바알

연세

대학교 성소수자 공동체 컴퓨터대가 중앙동아리가 되고 나서, 학내 모 신문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학교의 포용이라는 등, 음지에서 양지로 나가는 것이라는 등,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빌리며 위태위태하게 이어져가던 기사가, '학교가 이게 뭐임?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라는 당찬 호모포비아 발언으로 장식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저기의 열받은 사람들, 단체들이 성명서를 속속들이 발표하면서, 심지어 학교 외부 단체들의 지지성명서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결국은 그 성명서들을 모아모아 자보전을 할 수 있을 분량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은 그 신문들을 비판하는 자보로 오고폭혀 들어차고, 지지하는 이는 지지하고, 비판하는 이는 비판하고, 악플다는 이는 악플을 달며 학교를 달구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서를 낸 입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호모포비아에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기사를 써준 것도 감사해야 할 판에 항의를 한 것이 왜뻘해서일까요? 그저 '무시하기 딱 좋은 대상'이었기 때문일까요?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똑똑히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은, 호모포비아 사건에서의 가해자는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신문사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그저 사건 대응을 지지하고 함께하던 우리들 가슴속에 씹쓸함만을 남기고 말이지요.

축제

기간이 무르익어갈 즈음이었습니다. 학내 모 언론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했고, 사회자의 입에서 동성애자를 희화화하는 발언이 청산유수로 흘러 나왔죠. 그러더니, '아이쿠 동성애자들, 호오오오옥시나 제셨다면 죄송'하다는 수습용 멘트가 나왔습니다.

불쾌감을 느꼈다는 어떤 학생의 문제제기로 사건 처리가 시작되고, 그 폭력적 발언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우리에게 돌아온 그들의 입장은, '난 호모포비아가 아니고, 잘못된 만큼 이미 다 사과 했다' 랍니다.

생각해봅시다. '넌들 게이임?'이라는 발언은 웃기기 위함이 아니었나요?(동성애자는 웃긴 거니까요, 네) '혹시나 있다면 죄송'하다는 '어이없는 사과'에 사람들은 한 번 더 웃지 않았을까요?(동성애자는 있을 리 없으니까요, 네) 솔직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마음놓고 웃을 수 있는 이성애자들'을 한 번 더 웃기기 위해서 그 말을 던진 것 아닌가요?(여기에 동성애자는 있을 리 없으니까 이성애자로 가득 차 있는데, 동성애자를 두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이성애자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네) 그런데도 호모포비아 아니야? 정말 아니야?

결국 그 단체에서는 발언은 호모포비아가 맞다고 인정하지만 그것을 성폭력 가해라고 인정하지는 아니 하겠으며 공식적인 사과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하, 불과 몇 줄 위에도 엇비슷한 대응을 보인 다른 단체가 있네요. 같은 패턴으로 우리 가슴 속에 씹쓸함 하나 더 늘려주셨고요. 예효.

호모포비아 2.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맞아

요, 이 글은 사실 폭로성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상적인 호모포비아는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가, 많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성명서를 쓰고 자보전을 해도, 그렇게 무진 애를 써가며 대응을 해도, 팽하고 무시당해 그냥 묻히고 넘어가기 일쑤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어내시면, 우리는 그동안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들인 노력이 참 억울하고, 사건을 잘 해결하려고 공들인 시간을 생각하면 열 받고, 다시 한 번 상처받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힘이 빠지거든요. 이토록 비겁하게 요리조리 피해나간 것을 비판하고 책임을 물으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알아요, 어디 학내 언론인이겠습니까? 강의실에서 툭툭 던져지는 교수님의 농담이 호모는 싫어 에너지 발산하고 계시고, 질병으로 접근하는 혹은 유전자로 접근하는 동성애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가 호모는 비정상 포스를 내뿜고 계시고, 게이와 레즈비언을 묘사하는 매체들이 호모는 이상해 교리를 펼치고 계시지요. 우리는, 호모포비아 사회 내의 호모포비아 학교에서 호모포비아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호모포비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앞의 사례들은 대상이 그나마 정신줄을 다잡자고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성찰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학생 사회의 구성원이자 학내 대표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기에 강조점이 적힌 겁니다. 딱히 전세계 다 통틀어서 제일 질 떨어지는 호모포비아 사례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로 쏙쏙 들어오는 각종 호모포비아 발언에, 고막을 두드리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아동바등 문제제기하는 우리들의 이마를 땀 뿜어내는 그들의 대응에, 우리의 정신줄은 헤져 너털너털해집니다. 그래도 꼭 붙들고 또 걸어야 하지요. 발등에 채이도록 많은 호모포비아지만, 툭툭 걷어다가 길섶으로 밀어내는 우리들의 발짓이 지금도 변화를 만들고 있을테니까요. ●

by 연지 늬온이 모드인, 자몽

이 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한 친절한 설명

- 1 호모포비아를 직역하면 동성애 혐오증입니다. 이성애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이라는 두 개의 분류로 환원되지 않는 모든 성적체성을 혐오하게 되는 몸살 사고입니다.
- 2 작년에 있던 사건과 올해 있던 사건이 서술되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궁금하시면, 19대 총여학생회의 "연세춘추의 컴퓨터 중임동아리 인준 기사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입장"과 20대 총여학생회의 "대동제 기간 연세교육방송국 YBS의 방송제 '술속의 향연'에 있었던 동성애 회화 발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라는 성명서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 3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틀을 누비다는 남성과 여성으로 환원되는 성별 이분법과, 그에 의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획일화로서 모든 인간,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재생산하는 현사회의 이성애중심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런 의 이로디가 탈이성애중심주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여휴 파티

여휴의 여휴

여학생 휴게실은 언제나, 여학생 누구든 남성의 시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학내 공간을 벗어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휴게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생리대, 월경통을 달랠 수 있는 차 등의 물품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제나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의 여휴는 비품구비와 청결은 둘째 치고 심지어 동만 쉬기도 열악한 공간이었다. 여휴 개선사업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오묘한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여학생 휴게실이 단순한 쉼의 공간으로만 남는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우리에게 있어 여휴는 몸의 휴식은 물론이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여학생들 간의 교류를 늘림으로써 마음의 휴식까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번 여휴 파티를 통해서 여휴 업그레이드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현재 학내에 여학생들간의 연대 및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떠올려 보면 여학생 휴게실의 거듭남은 중요하다. 여학생들이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여휴를 함께 만들고자 한다.

상상그이상의 여휴

여휴 파티 행/사/안/내

① 대안달거리대 전시 : 편리함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번거로움이나, 눈에 보이는 깔끔함이나 건강이나, 몸에도, 환경에도 독이 되는 환경호르몬이 듬뿍 담긴 일회용 생리대와 독성소크중후군을 일으키는 탐폰, 이젠 벗어나자!

② 월경통에 좋은 차 비치 : 세부설명과 함께 월경통에 좋은 차를 비치해 놓아요.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통제를 먹는건 좋지 않아요~

③ 여성주의 도서 자율 대여 : 여성주의 관련 도서를 비치해 두고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여성주의를 알려보아요. 관련 도서뿐만 아니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만화책도 함께!

④ 월경주기 팔찌 만들기 : 월경주기 팔찌를 만들어 보면서 여성의 몸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보아요. 그동안 잘 못 알고 있던, 숨겨왔던 월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예쁜 팔찌도 만들어요!!

⑤ 영화상영 : 처음 만나는 자유 (상영시간: 저녁 6시 30분)

⑥ 잡담회 & 뒤돌이 : 함께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다과를 먹으며 그동안 말 못 했던 여학생으로 살아오며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도 털어놓아요. 잡담회를 마치면 이과대 & 법대 여휴파티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달착지근한 뒤돌이 시간도 함께해요!!



일시 2008년 9월 16일(화)

장소 이과대학 & 법과대학 여학생 휴게실





여기서 '미스코리아'는 미스코리아에 선발된 여성 개인이 아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의미한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올해로 52회를 맞이하였다. 길기도 하여라.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어림잡아 최근 20년 동안은 여성에 대한 성적 상품화를 비판해나가는 지난한 과정이 있어 왔다. 안티미스코리아 대회를 주최하는 등의 비판을 가해왔기에, 적어도 이러한 성적 대상화/상품화에 대한 문제 제기에 '타당한 측면이 있긴 하다'라고까지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듯하다. 그리하여, 2002년 부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금지하지는 않되) 공중파에 공공연하게 내보내지는 못하겠다는 암묵적인, 합의 아닌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없이 이야기되어 와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겠지만 '선발대회 방영 금지'까지 오도록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잠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취지 자체에 여성의 성적 대상화/상품화를 내재하고 있다. 미스코리아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들은 수영복을 입고 몸매를 강조한 옷을 입고 남성 앞에 서서, 노골적으로 남성 시선을 견뎌내도록 강요된다. 이 단계를 거치면 '보기 좋은 여자란 무엇인가'가 '객관적인 미학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그녀들의 몸에 100점 만점의 점수가 매겨진다.

이러한 성적 대상화/상품화를 거치면서 남성 중심적인 시각만으로 단 하나의 미의 기준이 만들어진다. 이 때 규정되는 아름다움은, 미스유니버스 대회를 염두에 둔 세계적인 것이어야 하기도 하고, 동시에 '여성 상품'의 특성화를 위해 가장 한국적인 것이어야 하기도 하다. 그리하여 미스코리아 후보들은 수영복 심사 직후에 한복 심사를 받게 된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심사위원들은 '귀엽고 섹시한,' '청순하지만 몸매가 좋은' 여성을 상상 속에서 실컷 그려봤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을 100% 충족시킬 여성은 없다. 결국 현실 속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상품 가치'는 그들의 '이상'과 견주어 서열이 매겨진다.

이제 와서 미스코리아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선발대회를 통해 강조되는 여성의 '상품 가치'가 과거의 단순한 성적 대상화/상품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제는 단순히 외모만을 여성에 대한 평가의 척도로 삼지 않는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은 여성들을 진열대 속에 우수한 상품 고르듯, 모든 조건을 꼼꼼히 재본 후에 평가를 내린다.



www.ckm.co.kr

최근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에 출전하는 후보들의 학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4년제 대학에 다녀야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위 누구나 쉬이 떠올릴 수 있는 '바로 그' 명문대 혹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여성들, 대학원 과정에 속한 여성들이 더욱 더 많은 비율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입상하고 있다. '지성미'라고 포장되는 학력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거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우리의 고정 관념 속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진화'한 것이다. 성을 상품화하는, 그저 볼거리를 제공했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이제는 사회에서 원하는 여성상 그 자체를 규정한다. 한편, 2007년 미스코리아 미에 입상한 김주연 씨가 '비혼' 상태에서 임신하였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전국적 스캔들로 퍼지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주최 측에서는 '사생활과 관련한 이유로' 그녀의 미스코리아 자격을 박탈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인 화보집을 찍고 성인용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08 미스코리아 미 김희경 씨 역시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미스코리아 자격을 박탈당했다. 미스코리아를 심사하는 '그들'은 '객관적으로 예쁘고 지성미를 갖춘' 여성들의 기본 조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성다운 조신한 처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한국 사회에 이미 널리 퍼져있는, '여자는 자고로 순결을 지켜야지' 식의 '전통'과 결부시켜서 말이다.



www.ckm.co.kr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코리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다각화'되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다양한 개성을 선보일 수 있는 혼돈한 미의 각축장이 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은 덕에 이제 그들이 가끔씩 바라 마지않던 상호 모순되는 선발 기준들이(수영복의 섹시함과 한복의 단아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등) 통합되어, 더욱 더 많은 조건들로 사회의 곳곳에서 여성들을 옥아맨다. 여성들은 섹시해야 하고, 현명해야 하고, 단아해야 한다. 최근 미스코리아 출신의 많은 여성들이 아나운서가 되는 것은, 그녀들이 현 사회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을 충족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여성의 지위를 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들의 삶은 이제 미스코리아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갖추기만 하면 일류를 보장 받는다. 이처럼, 모든 여성은 단일한 범주 안에서 서열이 매겨지고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는다. 객관의 이름으로 감춰진 남성 시선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입장을 장악하면서 여성들을 줄세워 누구는 일류, 누구는 이류, 누구는 삼류로 규정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들은 주체가 아닌, 그냥 여러 조건들의 조합이 될 뿐이다. 하지만 여성은 여러 조건들의 조합이 아니다. 모든 여성들을 오직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여성 개인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것, 여성 개인이 지닌 다양한 정체성 가운데 모두를 삭제하고 '그들'이 규정짓는 여성성만을 중시하는 것, 이는 그 자체로 타자화이다.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모두 빼앗은 채 여성들이 남성들의 눈에 충족되는 조건을 갖도록 강압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강압을 보다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여성들 간에 누가 더욱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인가를 경쟁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은 여성들의 주체성을 박탈한다. '미스코리아는 즐거운 축제인데 그냥 즐기면 안 되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정말 누구에게나 즐거운 축제인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조금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

by 루



광장에 올려 퍼지는 그녀들의 목소리

1. 들어가며

오랫동안 집회 내에서 여성은 그녀들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집회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는 것은 그남들의 몫이었고, 여성은 그들이 정한 틀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객체, 혹은 보조자에 머물렀다. 전경들과 대치한 상태에서 전면에서 나서 화염병을 던지는 공격적 주체가 남성이라면, 후미에서 서서 그남들에게 화염병을 날라주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다. 또한 장기간의 투쟁으로 지친 남성에게 쉽타가 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되기 되기도 했다. 뜻을 함께 하는 여성과 남성이 모였음에도, 여성은 남성에게 어깨를 걸고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동지로 여겨지지 못했던 것이다. 혹 여성이 집회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집회 내의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라도 하면, 그것은 사소한 것, 혹은 대의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공론화되지 못한 채 사그라지곤 했다. 그때 그 시절의 집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2.

오늘날에도 크고 작은 투쟁에서 여성들의 요구가 부차적으로 치부되는 일은 허다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해서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있다.

첫 번째 목소리,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여성들

사회는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알파걸을 새로운 여성상으로 내세우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성이나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무수히 많은 여성들의 현실은 '알파걸'과는 거리가 멀다. 2007년 기준으로 여성 중 비정규직은 67.6%에 달하고, 월평균 임금은 162만1천원으로 남성의 52.8%에 불과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70% 이상을 여성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¹⁾.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의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노동자 내에서도 소위 '가족임금' 원칙을 내세워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이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생존권, 노동권을 주장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무자비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미 1000일을 훌쩍 넘었고, KTX 승무원들의 투쟁은 800일,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도 400일이 넘는 가운데, 정부와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와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들의 투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앞세우며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임금 삭감, 고용 유연성만을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서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엿보이지 않는다. 문자 한 통을 통해 일방적인 해고 결정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를 십사리 빼앗길 수 있지만, 사용자 중심의 법과 기업 프렌들리 한 정부의 노사 간 중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라는 적반하장적 결론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함께 연대하여 노동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투쟁해야 할 일부 대기업의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기도 한다.

결코 그녀들의 투쟁에 우호적이지 않은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녀들이 포기한다면 그녀들이 사측으로부터 당한 일방적 해고와 비인간적인 대우가 다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될 것이고, 모두가 이 부조리한 현실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속으로 참고 견디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다면 누가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때는 아니지만, 계속 투쟁해야 한다는 데에 변함없다고 생각해요." - 기륭전자 윤종희 조합원²⁾

두 번째 목소리, 촛불을 들어 민주주의와 건강권을 지켜내려는 여성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을 위해 노동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내거는 위험천만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들은 더 큰 이윤창출을 위해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재앙이 닥친 이후에도 여전히 이윤 추구를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축산업계, 축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이를 방치하는 미국 정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일부 산업 수출 증대와

검역주권을 통째로 맞바꾼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등 결과적으로 '이웃'을 위해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처음 반기를 든 것은 일련의 10대 여학생들이었다. 그녀들은 일제고사, 우열반 등 현재의 학벌주의를 공고화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처음 촛불을 들었고, 이명박 정부가 무성의한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의 소를 포함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정지은 후에는 그 촛불이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다. 아이들 가수에 정신이 팔린 '박순이'로 비하되던 10대 소녀들은 그녀 자신들과, 자신들이 사랑하는 '오빠'들을 광우병 소로부터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재빠른 행동력을 보여주었고,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도 다른 대한민국의 허울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용기 있는 모습은 많은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10대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의 발걸음이 광장으로 이어졌다.

속칭 '된장녀'라는 용어로 그남들의 무차별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프라인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그들만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통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서로 밀어주기에 여념이 없는 반면, 여성들은 그로 인해 공적 영역에서의 발언권을 제한당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그녀들은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축할 수 없었던 그녀들만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갔다. 그녀들은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를 통해 일상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패션, 연예, 문화 등 전반의 관심사를 공유해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는 각종 가십거리에 밀려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정치 관련 글이 커뮤니티에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87년 민주화 항쟁 전후에 태어나 절차적 민주주의만큼은 보장되던 시대를 살아온 20대 여성들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 당선이라는 절차적 정당성만을 앞세워 최소한의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정치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더군다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거리에서 집회하는 시민들이 물대포로 맞고 전경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의 한가운데서 소위 '민주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는 독재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에 맞닥뜨린 이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들은 각자가 속한 커뮤니티의 깃발 아래 시간, 장소를 정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였고, 하이힐을 신고 가두행진을 하며 우렁차게 구호를 외쳤으며, 각자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가며 집회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몇 차례의 성금 모금을 통해 신문에 촛불집회에 관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집회를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종전의 각종 집회에서 여성들이 수동적 참여자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했다면, 촛불집회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줄만 알았



던 젊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시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변화된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쟁점을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발화하는, 주체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사회 전반에 대한 무식함과 제 자식만 챙기는 이기심을 이유로 '아저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비난받던 '아줌마'들은, 용감하게 유모차를 끌고 나와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의 건강까지 챙기며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역할 분담으로 인해 가족의 식탁을 책임져야 했던 여성들은 먹거리와 관련한 문제들에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라는 요구는 그것이 비록 성역할분담에 의해 자신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역할에 기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녀들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넘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거대 식품 산업자본이나 국가가 아닌 그녀들 스스로가 생명권과 건강권의 주체가 되고자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집회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되던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여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제각기 다양한 동기로 집회에 나왔고, 집회를 통해 목적하는 바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촛불집회 내의 여성들은 각자의 주장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서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발언대에서 행해지는 너무도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 그것이 비록 자신과 다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며 억압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집회 내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더 단단하게 서로가 가진 힘을 결집해가고 있는 것이다.

3. 나가며

사회는 말로만 '알파걸'을 내세울 뿐 실질적으로는 그녀들을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 규정하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들은 이미 그 좁디좁은 구획을 넘어서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타개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서고 있다. 치장한 이념을 앞세우지 않아도 그녀들의 일상이 곧 정치가 되고, 투쟁이 되어 그녀들을 움직이게 하고, 소리치게 한다.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일들에 비판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집회의 주체로서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더 나은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희망을 발견한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녀들의 지난한 투쟁이 결실을 맺기까지, 그녀들의 목소리는 광장에 더 크게, 더 널리 울려 퍼져야만 한다. ●

by 달력

1) 허완주,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들이여 함께 싸우자>, 『민중의 소리』, 2007

2) 남성 혼자 일한 대가로서 자신과 피부양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적합한 단일양육

3) 윤보춘, <웃고 울며 의처증 1000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중의 소리』, 2008/08/20

4) 혹자는 유모차를 방패로 내세워 전경들의 물대포에 맞선 것은 유모차에 탄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겠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집회에 함께 데리고 오지 않을 경우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집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과연 아이들을 언제 어느 때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맡길 만한 장소가 존재하는지가 의문이다. 또한 공공권이 유모차에 탄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물대포 쏘는 것을 꺼려할 만큼 인권이었던지도 의문이다.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집회에 참여하면 아이들을 방치한 채 어머니로서의 의무도 저버리고 집회에 참여한 것을 비난하지 않을까. 결국 유모차를 앞세운 여성들이 아이들을 방패삼아 집회에 참여했다는 말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

난 이제까지 결혼을 당연시하고 살아온 평범한 여자에였다. 하지만 최근 엄마를 보면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50대의 나이에도 교사로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엄마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간 홀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리신다. (오빠들과 내가 학생이었을 때는 도시락까지 싸셨다) 그러는 동안 아빠와 우리들은 뭘했나? 물론 엄마가 깨우면 쿨쿨 자다가 일어나서 따뜻하게 차려진 아침밥을 먹었다.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결혼하면 엄마처럼 맞벌이를 하게 될 텐데, 수 십년 동안 항상 나만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대답은 NO이다. 그렇지만 나도 아이는 기르고 싶다. 이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이러한 의문 속에서, 자발적 비혼¹⁾이 된 방송인 허수경의 선택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 때 소위 '잘나가는 방송인'이었지만 두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두 번의 자궁 외 임신으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해지는 시련을 겪은 그녀가 정자기증을 통해 임신했음을 밝히고 딸을 출산한 것이다. 그녀의 남다른 선택은 정자기증의 합법성 유무 등 비혼모 논쟁에 불을 붙였다. 모성권리의 선구자, 기존의 가족의 틀을 깬다는 찬사도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버지 없는 아이를 만든 이기주의자라는 비난도 뒤따랐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거나 왜 입양을 선택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그렇지만 난 여기서 그녀가 옳다 그르다 논하고 싶지 않다. 비혼모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3자적 입장에서 그들을 평가하고 제어할 수는 없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싶었다. 하지만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비혼모를 선택한 것에 대하여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 언제는 낚아지는 출산율이 걱정이라더니, 도대체 왜, 한국 사회는 비혼모들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거지? 이 사회에서 가족이란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 때의 결혼 제도는 이성애를 전제로 하여 '남편'과 '부인'을 모두 갖춘 가



엄마가 되려면,
꼭 결혼해야 하나요?

정만을 정상으로 여긴다. 입양이든 출산이든 '남편이 없는' 자발적 비혼모의 아이 양육에 대한 편견은 호의적이지 않고, 또한 어렵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개정²⁾에 따라 비혼 여성이 신생아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입양 기관들이 비혼 여성의 신생아 입양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실제적인 입양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허수경처럼 싱글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할 수 있을까?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위가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신청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고자 할 때는 의무적으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합법적으로는 정자기증을 받을 수도 없게 돼버린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어머니가 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비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남성이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통제하려는 순결이데올로기에서도 비롯된다. 이 사회에서 '남편에 의해 소유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직 남편이 있는 여자만이 아이를 가질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허수경씨가 '자신에게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인터뷰 기사에 달린 "그럼 남자는 필요없다는 거냐?"라고 비아냥대는 댓글을 보자. 남성들이 스스로를 '여성을 임신시키는' 생물학적인 필요성으로 환원하는, 이러한 페니스 중심적 사고방식은 정자기증을 통한 임신을 남성들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보고 공격적으로(또는 유치하게?) 반응하게 한다.

글을 쓰면서 생각해 봤다. 왜 남편이 없는 여자는 아이를 낳거나 기르면 안 될까? 근본을 알 수 없는 애라서? 아니면 아빠가 없으니까 인간성에 문제가 생길까봐? 가난할 확률이 높아서 범죄자가 될까봐? 사실 이런 문제는 남편이 없는 여성이 아이를 기르는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그런 가정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지 못하는 사회 환경 탓이 크다고 본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그러면 빨리 진짜 이유를 알려주십라. 솔직히 나도 정말 매우 몹시! 궁금하다. ●

by 결국에 나는 결혼하게 될까 어떻게 궁금한 ssam

1) 비혼(非婚) 결혼할 생각이 없는, 혹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 결혼을 원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비혼(非婚)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결혼하지 않음에 행위자의 주체성을 드러낸다.



김현미 선생님과 인터뷰 :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요즘 한국사회에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난무한다. 시부모님께 봉양 잘 하는 며느리, 남편 내조 잘 하는 아내, 모성이 뛰어난 엄마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운다. 반면, 한국 남성들 돈 갖고 도망간다는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자기 편한대로 이미지 만드는 건 이제 좀 그만하자. 정신줄 꼭 잡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국제결혼이주성과 관련된 사안들을 연구하는 여성주의자, 사회학과 김현미 교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한국 사회 국제결혼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김현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되짚어 보았다.

기획단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연구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래 글로벌리즘과 젠더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했다. 처음에는 세계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여성노동의 특수성에 대해 연구하다가 2000년대 즈음에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한국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의 국민국가주의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한국 정부가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모순들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획단 한국에서 결혼은 '아름다운 결합', '영원한 사랑' 등 미화되고 이상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에 아닌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하는 여성들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한국 남성들은 이미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실현할 수 없는 남성이 경제적 역할을 하고, 여성이 돌봄 노동, 가사노동만을 하는 근대적 가족을 추구한다. 아무런 불만 없이 봉양도 하고 묵묵히 수행해 줄 수 있는 여성을 외국에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나이가 어리고, 순진하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이미지로 중개업들은 한국 남성들의 오리엔탈리즘적 상상을 현실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제결혼을 통해 오는 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다르다.

한국 사회의 남성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리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쪽이다.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가 사회주의권이기 때문에 노동적인 면에서 남녀가 똑같이 평등하게 노동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오래 경험했다. 가사에서도 남녀가 같이 가사분담을 하거나,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 필리핀은 모계제도가 강하다. 여성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여성들이 한국으로 올 때에는 어느 정도 결혼을 통한 계층 상승을 기대한다. 그러나 들어와서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시스템 아래서의 여성의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니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것이다.

이 외에도 국제결혼이주는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상상되기도 한다. 한국 남성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장소가 갖고 있는 가치, 부와 현대성과 도시와 세련미, 남녀 관계에서의 친밀감, 평등 등 물질적인 풍요와 남녀관계의 친밀성, 소통을 상상하고 온다. 이 여성들 역시 약간의 모순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권 안에서의 양성평등 가치를 중요시 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낭만적 연애에 기반 한 낭만적 부부관계, 친밀성의 관계를 추구하고 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상에 비해 한국사회의 낙후된 여성에 대한 인식과 전형적인 가족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점들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결혼의 상과 너무도 다른 한국 사회에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기획단 결혼이주를 생각하는 베트남 여성의 결혼이주에 대한 생각과 이주 과정 및 이를 바라보는 베트남 사회의 시각은 어떠한가요?

베트남은 70년대 중반까지 전쟁을 치른 나라이다. 전쟁 때 많은 남성들이 죽어서 인구 성비가 맞지 않아, 결혼 압박이 크다. 조혼에 대한 강조 역시 심하다. 20살만 넘으면 집안의 폭탄이라고 불리면서 결혼 압박이 심하다.

베트남이 개혁개방 이전까지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프랑스 식민지의 경험 속에서 백인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았다. 그러다 개혁개방이 되면서 국제결혼이 일종의 현대성의 상징, 자유 의지에 의해 결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만에서 십 년 먼저 중개업에 의한 중개결혼을 대규모로 했다. 동네 15명 중 1명 정도가 결혼 이후 성공신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원래 부모 근처에 살면서 3모작 중 노동교환을 하며 친밀성을 교환하는 것이 효의 개념이었는데 효라는 것이 물질의 개념으로 변화했다. 나 하나 국제결혼 하면 나의 가족에게 부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으로 결혼이 생각되면서, 동네에서도, 부모들도 국제결혼을 여성들에게 권유했다. 또한 농촌 여성들의 수수한 결혼식과는 달리 국제결혼에서는 베트남 중산층 이상만이 할 수 있는 웨딩드레스 입는 결혼식이 가능했고, 이것 역시 국제결혼의 욕망에 중층적으로 작용했다. 한류, 한국드라마에 나타난 상냥하고 애정 어린 남성에 대한 이미지도 국제결혼의 활성화에 일조했다.

경제적 빈곤만이 국제결혼의 이유가 아닌 것이다. 현대성에 대한 이미지와 욕망이 국제결혼에 접속된다. 여성이 글로벌 욕망의 회로를 중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욕망의 현실화는 국제결혼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제3세계 농촌을 영리를 만들어내는 농촌으로 탈바꿈하는 세계화의 구조 개혁속에서 빈곤의 가속화 역시 국제결혼을 가능케 하는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기획단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에게 기대하는 태도 및 요구하는 사항들은 과거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타자화는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일까요?

역사적 이유가 있다. 한국 남성들이 용병으로 베트남전쟁에 가서 많은 베트남 여성들과 성적 접촉을 하거나 거래를 하고 한국 기업들의 현지차라든가 가족 등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동원되면서 한국 남성들 사이에 베트남 여성들이 정복 가능한 타자로 여겨졌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욕망의 대상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여겨지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베트남 여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획단 '이주의 여성화'라는 표현이 선생님의 글에 등장합니다. 감정노동과 돌봄이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고, 이를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특히 '결혼이주'를 통해 외국 여성들이 이주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니다. 이주노동도 한국의 대체노동이 없을 때만 일시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저출산의 위기, 가족해체의 위기 등 한국사회에 위기가 도래하면서 한국남성을 위로하고, 한국남성의 동반자가 되어줄 여성이 시급히 필요해졌다. 또한, 결혼은 한국으로 이민하는 데 거래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통로이다. 여성들에게는 기본적인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 노동하기 위해 공장으로 오거나, 유흥업에 종사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많은 돈과 절차가 필요하다.

기획단 이주여성의 권리가 불안정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한 뒤 법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결혼 이 후 2년 이상을 살면 국적 취득 신청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2년을 살았어도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적취득이 달라진다. 위장결혼이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이의 유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자. 이주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피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남성들의 경제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해야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이 낳는 것을 급히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결혼의 대부분은 한국남성의 재혼이다. 따라서 이미 자식이 있고, 더 이상 애를 낳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애가 없으면 이혼결혼, 도망 갈 사람으로 취급한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다.

가족 의존적 대상으로만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적이다. 이주 여성의 개별적 자아로는 권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국제결혼한 여성들에게 한국 국적을 얻기를 강제할 수도 없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여성들이 이혼해서 본국에 돌아갈 수도 있고, 나이 많은 남편들이 생계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여성들이 본국에서 노동을 하거나 아이들을 본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 향후 이 사람들 삶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본국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 제도 역시 고학력에는 쉽게 발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제3세계 여성들은 발급이 힘들다. 또한 영주권 제도만으로는 한국에서 살아가기 힘들다. 주택 청약도 안 되고 주민등록 없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 계급 차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차별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획단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이주를 준비하는 여성들에 대한 현지의 관리체계가 인신매매의 관리체계와 매우 흡사하다고 하던데요.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적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베트남 정부의 시도 등이 존재합니까? 어떠한 개입이 필요할까요?

허위정보에 의한 결혼 역시 인신매매로 UN은 규정하고 있다. 동네 아주머니 등의 모집책이 여성을 도시로, 소마담에게 인도하면 소마담이 데리고 있다가 대마담에게 여성들을 데려간다. 대마담은 10-15명의 소마담을 거느리고 있음, 대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한국에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아직 없다. 필리핀, 미국 다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가장 극악한 상태로 한국에 오는 여성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

하도 문제가 되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엔 산하 시민단체, 한국의 IOM, 여성부가 함께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에 이주정보제공 SESSION을 설치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결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통해 남성들의 경제 기반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해라로 가니까 정책이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남성들도 남이 하나까 다하고, 결혼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개업에 의해서 전혀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결합이었다.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주전프로그램 등등...

기획단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세계화 시대에 평등한 타자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이주 여성을 단일한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 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살려내야 하지 않을까. 이주 여성들을 처음부터 하위직종으로만 상상하지 말고, 그 안의 다양성을 인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연미림 쌤 반가웠어요!
by 인터뷰 진행 및 정리 유나

기획단 후기...

- 모두가 행복해지는 여성주의 먹고 우리모두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이 되어요 ♡
- 뉴라이트 자폭, 조중동해간, 민영화 반대, 한나라 해체, 언론장악 중단 등 외치는 바쁜 사자
- 내가 처음 여성주의를 만났을 때 느꼈던 두근거림 그 느낌을 모두와 함께 하고 싶어요.
FEMINISM IS FOR EVERYONE - 달리
- 솔직히 10화라서 더 기대된다. 욕심도 더 많이 난다. 기획단들도 더 이쁘다. 아이 좋아, 정말 좋아 - 자몽
- 그나마그래도그러니까그렇기때문에여성주의를해서준다. - 나누기
- 아직도 없었지만, 어쨌든 김왕왕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너무 근거 없나? 아이참. - 루
- 후기에서도 의미를 찾다니... 나, 졸업해요(핑긋) - 오리
- 역시 난 글쓰기는 무리다. 그치만 여성제는 재미있을거다. 함께해서 더 행복할테니까^^ - 뽕
- 우리모두들정말수고많았어요 토닥토닥~ 끝까지 마무리잘하고 같이 즐겁게 놀도록해요 으히히♡ - 뽕
- 여성주의 이야기로 학교가 가득할 걸 생각하면 두근두근 여성제에 다같이 합께해요 - 라임
-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와 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살아가죠.
이번 여성제는 우리 일상에서의 실을 되짚고 여성주의가 우리에게 더 나은 관계를 맺는 것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같이 해서 우리 더 좋은 관계 만들어가길^^ - 새벽
- '너 아직도 어중다녀?' 라고 끝까지 총아학생회를 어중이라고 부르던 내 마지막 동기마저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다시 가을.
난 이번 학기에도 '이철 같이 할래?' 라는 말에 선했. "응"이라고 대답하면서 여성제에 참여하게 됐다. 2번째 여성제이다.
처음은 처음이라서 떨렸다면 이번은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마음이라서 떨려온다. 언제나 무언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더 많이 나누고 싶고, 더 많이 듣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자. 모두모두 파이팅 - 이철
- 진득하게 참여 안 해서 다들 미안요~ - 말기
- 욕심을 버리기로 했다. 함께 즐겨요^^ - 유나
- 궁시령 대단 나의 좁은 목소리를 광장에 울려 퍼지게 하려면 나와 너 당신의
얘기와 함께하는 10회 여성제!~ - 궁시령

제 10회 여성제

《Feminism is for Everybody: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기획단

궁시령 (사회학 02)
나누기 (사회학 06)
달리 (행정 04)
말기 (세라믹공학 06)
라임 (사회계열 08)
루 (정치외교 06)
사자 (신학 05)
새벽 (법학계열 08)
뽕 (법학 06)
뽕 (경영 06)
오리 (화학 03)
유나 (국문 06)
이철 (사회학 06)
자몽 (법학 05)

함께하신 분들

날려라 빛자루팀
말이성애중심주의 운동팀
여휴파티팀
소문자남성팀
스트리트 파이터이자 스윙의 대가 송이송

